

## 하영드리미 외국어 버전 없어 사용 불편 호소

수강신청·강의평가 등에 유학생들 애먹어  
관계자 “일부 기능은 영어로 지원돼”

학내 통합정보시스템의 외국어 버전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외국 유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영드리미’로 알려진 통합정보시스템은 수강관리에서부터 생활관 신청까지 대학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다루고 있어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시스템이다. 현재 제주대 유학생 수가 600명을 넘어선 상태다. 유학생 수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하영드리미 외국어 버전 구축에 대한 목소리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

편입 유학생 장유유(국어국문학과 3)씨는 “하영드리미에서 수강 신청할 때 한국인 친구가 옆에서 도와주

지 않으면 이용하기가 힘들다”며 “외국어 버전이 만들어진다면 유학생들이 이용할 때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 유학생 도노반(생활환경복지학부 1)씨는 “한 학기가 끝나면 학점을 확인하기 위해 강의 평가를 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한국어로만 설명이 돼있어 불편하다”며 “한국어를 잘하는 편이라 다른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한국어가 서툰 유학생들은 하영드리미를 이용할 때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영드리미 시스템 관리를 맡고 있는 정보통신원은 외국어 버전을 추가

로 구축하는 데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들기 때문에 힘들다는 입장이다. 김경희(정보통신원) 정보통신담당관은 “외국어 버전을 새로 추가하려면 하영드리미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므로 여건상 매우 어렵다”며 “대신 하영드리미에서 로그인 후 언어 선택을 영어로 설정하면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수강신청, 학생생활관 신청과 같은 메뉴는 영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기능을 대다수의 유학생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류수학생 시미즈 마오(국어국문학과 3)씨는 “하영드리미에서 언어 설정을 따로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학기 초에 학과에서 유학생들에게 하영드리미 활용방법에 대해서 미리 잘 공지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선희(정보통신원) 학사정보총괄팀장은 “학사과와 논의를 거쳐 매학기 조교 교육을 할 때 하영드리미에서 언어 설정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유학생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또 다른 항목이 영어로 표기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수렴돼 개발 요청을 하면 그것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학내 유학생들을 위해 국제교류본부에서는 유학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나 교류수학생과 한국어과정 연수생을 위한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진호(국제교류본부) 실무관은 “학과 차원에서 학과별 도우미 제도를 만들어 학과 유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 제6대 교수회장 선거 오는 25일

기호 1번 양길현·기호 2번 송석연·기호 3번 이상봉 교수

사회과학대 중강당·병원 도서관·사라캤 회의실서 투표



양길현 교수



송석연 교수



이상봉 교수

강한 결과 기호 1번 양길현(윤리교육과) 교수, 기호 2번 송석연(법학과) 교수, 기호 3번 이상봉(회계학과) 교수가 출

마했다고 밝혔다. 기호는 지난 10일 입후보자 합의에 의한 방식을 통해 정해졌다.

선거는 오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10시

2시까지 1차 투표가 진행된다. 1차 투표에서 한 후보가 과반을 넘지 못하면 오후 4시부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이뤄진다.

선거장소는 사회과학대 중강당, 제주대병원 도서관, 사라캤퍼스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앞서 오는 18일부터 3일간 교수회사무실, 각 대학(원) 행정실, 기획평가과 사무실에서 선거인명부 공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투표는 전임교수들만 할 수 있으며 지난 1일 기준으로 588명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

한편 신입 교수회장의 임기는 오는 11월 1일부터 2년간이다.

김동현 기자

학생자치기구 예비후보자 등록… 총학생회 1팀 접수

동아리연합회를 제외한 학생중앙자치기구선거 후보자 접수가 마감됐다. 총대의원회(의장 김진영)에서 학생자치기구 선거 예비후보자 접수를

지난달 31일 마감한 결과 총학생회 1팀, 총대의원회 2팀이 접수했다. 총학생회는 후보자가 없었다.

총학생회에 좋은일만(정 유병선·

해양토목공학과 4, 부 홍성훈 영어교육과 4)가 출마한다. 총대의원회에 길라잡이(정 양승훈 경제학과 3, 부 신상우 동물생명공학전공 3), 의사소통(강대영 전자공학과 4, 부 변재현 동물생명공학전공 4)이 출마한다.

오는 26일·27일  
아라체전 열려

‘아라체전’이 오는 26일 열린다.

이날부터 이틀간 펼쳐지는 아라체전은 ‘이공일이’ 총학생회(회장 정준호) 주최로 개최된다.

단과대학 단위로 참가하는 아라체전은 오는 26일에는 개막식, 종목별 예선 및 8강전이, 27일에는 종목별 4강전 및 결승전이 열리고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아라체전 기간에는 대운동장에서는 축구, 발야구, 씨름, 단체줄넘기, 계주, 승부차기, 줄다리기 등이 진행된다. 학생회관 앞에 위치한 한라터에서는 축구, 여자피구가 열린다. 실내체육관에서는 농구가 진행된다. 한편 체전 첫날인 26일에는 대학 공식 휴강일로 지정됐다.

의류학과 제15회 졸업 작품 패션쇼 열려



지난 8일 오후 3시와 7시 두 차례에 걸쳐 의류학과 패션소가 자연과학대학 2호관 야외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제15회 의류학과 졸업 패션쇼’가 지난 8일 오후 3시와 7시 두 차례에 걸쳐 자연과학대학 2호관 야외 특설무대에서 개최됐다.

18명의 학생이 참여한 이번 패션쇼는 만남(패션 또다른 소재와 만나)이란 주제를 갖고 열렸다. 세부주제로 ‘패션에서 일상을 찾다’, ‘패션에서 재미를 즐기다’, ‘패션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다’, ‘패션을 파괴하다’로 나뉘어 진행됐다. 또 제주도 전통 의상인 갈

옷과 중국 전통 의상인 치파오, 한복 및 웨딩드레스도 선보였다.

장병수(의류학과 4)씨는 선글라스를 이용한 메탈소제 사용으로 압축 같은 취급길과 스펙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또 양은정(의류학과 4)씨는 ‘장난감’이라는 테마를 갖고 지금의 자신 모습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어린 시절의 동심을 찾고자 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나타냈다. 유성민(의류학과 4) 졸업작품

준비위원장은 “모두가 밤잠을 포기하고 힘들게 준비한 패션쇼”라며 “학부모와 교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혜선 의류학과장은 “환경보전의 일환으로 갈옷을 비롯해 환경친화적인 디지털텍스타일프린팅 작품을 선보였다”며 “대한민국의 패션산업이 세계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 2013년도 수시 2차 모집 경쟁률 3.7대 1 기록

수의예과 일반전형 13대1  
학·석사 통합 의전원 6.2대 1

2013학년도 수시 2차 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553명 모집에 2064명이 지원해 평균 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학과는 수의예과 일반학생 전형으로 8명 모집에 110명이 지원해 1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형 유형별 경쟁률은 ▲일반학생 5.9대 1(275명 모집에 1627명 지원) ▲취업자 1.3대 1(7명 모집에 9명 지원) ▲예체능 특기자 1.6대 1(49명

모집에 78명 지원) ▲농어촌학생 3.4대 1(62명 모집에 212명 지원) ▲특성화고 출신 2대 1(55명 모집에 110명 지원) ▲특성화고졸업 재직자 0.04대 1(46명 모집에 2명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0.4대 1(59명 모집에 26명 지원) 등이다.

특히 ‘선취업 후진학’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정원의 특별전형으로 시행되고 있는 특성화고졸업재직자 전형인 경우 지난해에는 지원자가 전혀 없었으나 올해에는 2명이 지원됐다.

원서접수 마감일인 7일 전체 지원자의 46.7%인 963명이 지원해 마지막 날 접수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 지역인재육성 특별전형은 6명 모집에 37명이 지원해 6.2대의 경쟁률을 보였다.

수시 2차 모집결과 전형유형별 모집단위별 경쟁률은 제주대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bsi.jejunu.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발표는 야간학과, 예·체능 계열 및 취업자 전형을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능시험 성적 발표 후인 오는 12월7일로 예정돼 있다.

수시모집에 합격한 사람 중 미등록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합격자를 선발한다.

## 제32회 백록학술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창간 제58주년을 맞이하여,  
제32회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공모합니다.

-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 응모분야 : 논문 A4용지 10~30매 내외(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이미 발표된 논문 제외)로 작성하고, 논문 출력물과 논문 파일 CD로 동시 제출, 제출된 원고는 반환 안됨
- 접수마감 : 2012년 12월 10일(월) 18:00까지
- 시 상 : 당선 - 총장상 및 상금 50만원  
가작 - 총장상 및 상금 30만원
- 접수장소 :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취업전략본부 건물 3층)
- 발 표 : 제주대신문 2013년 신년특집호(2013년 1월 1일 발행 예정)

언론미디어센터 제주대신문

## 제33회 영어말하기 대회 참가자 모집

언론미디어센터 영자신문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실용 영어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12년 9월 28일(금) 오후 4시

□장 소 :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1호관 1층 세미나실

▶참가 신청

□참가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신청기간 : 2012년 9월 10일(월) ~ 9월 21일(금) 오후 6시까지

□접수장소 :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취업전략본부 건물 3층)

□시상내용

대상 1명, 상금 : 50만원

우수상 2명, 상금 : 각 25만원

장려상 3명, 상금 : 각 10만원

언론미디어센터 영자신문



사 설

저조한 취업률, 분발을 촉구한다

2012년 우리 대학 취업률이 47.7%로 대학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었다. 건강보험연계 취업자를 기준으로 취업률을 산정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가장 낮은 취업률이다. 2011년 50.9%, 2010년 48.9%였었다.

통계를 읽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나타난 수치만을 보고 정책적 의미를 찾아내기는 힘들다. 취업률은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정한 비교대상을 설정하면 나름대로 정책적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우리가 보통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방거점국립대학들의 취업률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건강보험연계 취업자를 기준으로 취업률을 산정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지방거점국립대학들의 취업률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2011년 경북대학교 본교가 기록한 59.0% 취업률이 유일한 예외이다.

9개 지방거점국립대학을 중심으로 보면 ‘취업률 50%’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올해 취업률 50%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거점국립대학은 4개(경상대 46.3%, 전남대 본교 47.3%, 제주대 47.7%, 강원대 본교 48.0%)이다. 2011년의 경우에는 2개(충북대 49.3%, 전남대 본교 49.6%), 2010년의 경우에는 4개(전남대 본교 46.6%, 경상대 48.1%, 충북대

48.8%, 제주대 48.9%)였었다.

작년에 비해 올해 지방거점국립대학 취업률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3% 포인트 상하로 취업률이 하락하였다. 다른 지방거점대학들도 취업률이 하락하였으니 올해 우리 대학의 취업률 하락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사고는 금물이다.

2010년 48.8%, 2011년 49.3%로 최하위권에 머물던 충북대가 올해 55.1%로 최상위권으로 도약한 사례가 돋보이기 때문이다. 전북대도 올해 2.7% 포인트 취업률이 상승하여 최상위권으로 도약하였다.

이런 학교에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 취업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강원대 본교(54.9%~51.4%~48.0%), 올해 8.8% 포인트 취업률이 하락한 경상대의 사례도 살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우리 학교가 전개해왔던 여러 사업들도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재점검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대학 취업률은 지역거점국립대학 중에서 여전히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골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명품대학은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대학 구성원 모두의 협력과 분발을 촉구한다.

대통령선거와 지적 시민의 의무

정지란 ‘권력을 형성하고, 분배하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사회적 관계’를 의미한다. 여기서 권력이란 ‘폭력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원하지 않는 자신의 뜻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이다. 모든 공동체는 합의에 의해서만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의 운영을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권력은 요술막대기처럼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강력한 능력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그 힘에 도취되지 않고 그것을 남용하지 않을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 따라서 민주적 공동체는 민주주의와 인권,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할 때만 정당화되는 권력을 형성하고, 형성된 권력을 적절히 사용할 권력의 담당자를 선출하고, 권력자가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칸트는 완벽한 제도는 약의 종자들로 훌륭한 정부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까지 능동적이고 현명하며 공공성을 존중하는 시민들의 참여 없이 제대로 작동하는 그런 완벽한 제도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지구화가 국가의 역할을 변화시키고 정치적 주역으로서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가는 여전히 많은 시민들의 생활과 생존에 지대한 영향은 미친다. 오늘 아침 신문에서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이 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좌천·해직·구속됐다는 기사를 봤다. 어디 그 사람뿐이겠는가? 전직

KBS 사장도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해직되고 사법부가 그 부당성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복직되지 않은 채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 대통령의 권력은 검찰을 동원한 기획 수사를 통해 개인을 죽음으로 몰아가거나 산 송장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제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수십조의 예산을 강이나 바다에 버릴 수도 있고 반값등록금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그 자녀의 무상교육, 무상의료 및 주거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다니엘 벨이 지적했듯이 대학은 “지적 시민을 양성하는 곳”이다. 성장하는 지적 시민으로서 제주대생들은 한국 사회에 대해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역할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선거에서 대한민국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강력한 권력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숙고하고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이러한 지적 시민의 성장 과정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숙고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시민의 복지와 세계 평화에 누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선거에 호주 같은 곳에서는 의무 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권리를 누리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당한 논리에 의해 뒷받침된다. 우리나라에서 투표는 아직까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분명 시민의 도덕적 의무다.

사범대 학생회, 감사지적 최다… 4회 이상 경고 8곳

<예산 삭감 기준>

총대의원회 상반기 감사결과

사범대학 학생회가 상반기 감사결과에서 9회를 지적받아 25%의 예산이 삭감됐다.

‘기준하나’ 총대의원회(의장 김진영)가 지난 10일 ‘2012학년도 상반기 감사결과 평가서’를 중앙자치기구 게시판에 게시했다.

공약감사, 사업감사, 회계감사로 나눠 평가한 이번 감사에서는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등 4개 중앙자치기구와 13개 단과대학 학생회 및 장애인 인권위원회와 졸업준비위원회가 감사를 받았

다.

‘이공일이’ 총학생회는 회계감사에서 영수증 내역서 서명오류 1회와 영수증 날짜, 회계장부 날짜 불일치 1회로 총 2회 경고를 받아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다.

총학생회는 “공약감사는 5.7% 등 록금 인하, 등록금 예산 및 결산 내용 공개 등을 통해 더 투명한 제주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또 4.3 유적지 순례를 통해 4.3 사건의 피해자들의 아픔을 느끼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회계부분은 미미한 실수를 보인 부분이 아쉬웠다”며 “남은 공약

과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해 일만이라 학우들이 신뢰할 수 있는 총학생회로 총평받기를 기대해본다”라고 밝혔다.

‘女子친구’ 총여학생회는 영수증 내역서 서명누락으로 경고 1회를 받았고 총대의원회는 경고가 없어 두 자치기구 예산분배에 삭감금액이 없었다.

‘Why not?’ 동아리연합회는 회계장부 보상금에 대한 내용 오기 등 회계 감사에서 총 4건을 경고 받아 하반기 예산이 20% 줄어들었다.

단과대학별로는 사범대학 9회, 생명자원과학대학 7회, 사회과학대학 6회, 인문대학·공과대학 5회, 간호대

학 4회의 경고를 받아 예산이 일부 삭감됐다. 해양과학대학 3회, 예술디자인대학 3회, 경상대학 2회, 자연과학대학 1회, 수의과대학 1회, 아간강좌부는 1회를 지적받아 예산이 줄지 않는다.

또 장애인 인권위원회는 5회의 경고를 받아 예산의 10%가 삭감됐다. 졸업준비위원회는 2회를 지적받아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다.

김진영 총대의원회 의장은 “지적된 부분을 하반기에는 반목 하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며 “하반기 감사는 10월 중에 실시해 일반 학우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김은영 연구원 일본서 우수논문상

일본 번식생물학회사 높이 평가

“제주흑우 대량증식 기반 구축”

김은영(줄기세포연구센터) 연구원이 일본 번식생물학회지인 Journal of Reproduction and Development (JRD) 의 ‘2011년도 JRD Outstanding Paper Award’를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된 김은영 연구소장(미래생명공학연구소 협동연구책임자)은 인간배아줄기세포로부터 획득한 생리활성 물질이 대동



물인 소의 수정란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또 배아줄기세포유래 생리활성 물질이 착상전 배아 발달에 효과적 영향을 증명하는 논문을 제출해 그 내용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일본 번식생물학회로부터 2011 JRD Outstanding Paper Award를 받게 됐다.

‘제주흑우의 대량증식 기술개발 및 산업화’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논문 ‘배아줄기세포유래 생리활성물질의 소 배아 배양에서 새로운 단백질 첨가제로서 이용 효과에 관한 연구’는 2011년도 1월 JRD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연구책임자인 박세필 교수는 “연구팀은 첨단생명공학기술을 바탕으로 체세포복제 등을 통해 제주흑우의 대량증식 기술 개발 산업화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의류학과, 12일부터 친환경 패션 전시회 개최

천연염색 포럼도 열어

의류학과(학과장 이해선)는 WCC를 맞아 이벤트 행사를 연다.

12일부터 이틀간 제주시 연동에서 위치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전시실에서 친환경 패션전시회가 열린다.

‘패션과 소재의 만남’이라는 주제 아래 약 30벌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갈옷을 비롯해 차세대 친환경날염방법인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기법’

으로 만든 친환경 의복과 소품류가 선보인다. 12일 오후 2시 부터 같은 장소 다목적실에서는 ‘천연염색 포럼’이 개최된다. 포럼에선 ‘자연에서 얻는 환경친화적 색소의 응용(남성우 성균관대 교수)’, ‘천연색소자 원으로서 해조류의 활용(신윤숙 전남대 교수)’, ‘반물염색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적 쪽 염색(조경래 신라대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있다.

제주대병원, 관련 세미나 열어

소량으로 암세포 효율적 치료

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강성하)은 지난 4일 병원 2층 국제회의실에서 중입자가속기 도입 관련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금융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반 방사선종양연구소 관계자를 암치료에 있어서 발전된 기술로서 중입자가속기 등에 대해 설명했다.

중입자가속기는 탄소 속에 있는 중이온을 빛과 비슷한 속도로 만들어 초당 10억개의 원자핵 알갱이를

몸 속으로 보내 암세포를 파괴시키는 원리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최신 암치료기기의 일종이다.

장점으로는 적은 양으로 한번에 암세포를 효율적으로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치료기간도 짧고 정상세포의 손상도 그만큼 줄일 수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 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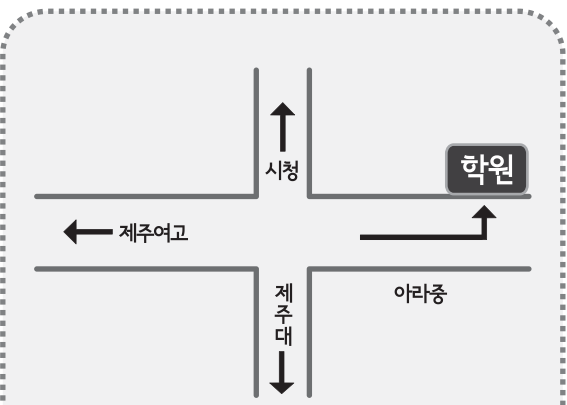
강성하 병원장은 “현재 중입자가속기는 전세계적으로 일본 3기, 독일 1기만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원장은 “이 장비를 도입한다면 도민들의 암 치료는 물론 국내 및 해외에서 암치료를 목적으로 오는 이들이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창진	편집인·주관 김동윤	편집국장 김명지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대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ac.kr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 주말교육가능
-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Speaking이 되면 세계가 보인다”

♡확! 바뀐 사운드 라이브러리로 초대합니다♡

- ▶ 편안하고 안정된 학습 환경과 시설
- ▶ 멀티미디어 영어 학습 시스템 구축
- Speaking 위주 멀티미디어 영어 학습 시스템
- 영어를 영어로 학습하는 콘텐츠
- 수준 Test를 통한 학습자의 수준 측정
- ▶ 기초부터 고급까지 수준별 학습
-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을 통합적으로 학습
- 각 단원별 Self-Test 제공으로 성취도 확인 학습
- 음성인식 엔진을 통한 발음교정 학습
- ▶ 각종 DVD, Video Tape 등 풍부한 학습자료 구축
- ▶ 전문 Tutor를 통한 영어 학습 상담 프로그램 운영

♡ ENGLISH CAFE OPEN ♡

- ▶ Free Coffee
- ▶ Free Talking
- ▶ Free Self Upgrade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  
Foreign Language Institute  
☎ (064)754-2291~2292, http://fli.jeju.ac.kr

제주학총서 12

# 기

## 제주유배소에서 만난사람들

제주유배지에서 만난 사람들에서는 연일 최익현을 비롯하여 여러 제주유배인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그들의 유배생활을 했던 제주목은 조선시대 제주도의 3개 행정구역 가운데 가장 유배인이 많이 왔던 지역이다. 조선시대 제주도에는 270여 명의 유배인들이 내도를 했지만 그 가운데 대정현에는 조선중기에, 제주목에는 조선후기에 들어 집중적으로 내도를 했었다. 그래서 대정현의 유배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다.

양진건 지음 | 255쪽 | 제주대출판부 | 15,000원

제주대학교



# 카사 델 아구아 “대중과 소통 통한 보존 필요”

<레고레타의 마지막 건축물>

## 건축학부 6일 철거문제 토론회 수교기념관 활용 등 제안

제주도 건축학계가 ‘카사 델 아구아 철거문제’에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대 학생들이 카사 델 아구아의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6일 오전 10시 공과대학 4호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미래의 제주 건축 주역들이 말하는 카사 델 아구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건축학부 학생들이 나선 것이다.

이날 토론회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정소희(건축학부 4)씨는 “카사 델 아구아는 제주의 화산석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건축가 레고레타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는 건축물”이라면서 카사 델 아구아 활용방안으로 결혼식 등 각종 행사를 열 수 있도록 시설을 대어해주는 등의 방법을 내놓았다.

정씨는 또 나옴시마 프로젝트를 사례로 들며 카사 델 아구아가 제주의 귀중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

했다. 정씨는 “나옴시마는 산업 기물로 버려지다시피 했던 일본의 작은 섬이 현대 건축과 미술의 세계적 명소로 발돋움했다”며 “카사 델 아구아 역시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범(3년)씨는 “원칙만을 고수하며 카사 델 아구아를 철거하겠다는 것은 행정중심적인 사고”라며 제주도를 비판했다. 이씨는 “서울시가 국제 지역 안에 특별한 경우 건축을 허가해주는 제도인 건축 특별법 등을 통해 건축을 장려하는 사례를 보고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씨는 올해로 한국과 멕시코간 수교를 맺은 지 50주년이 되는 점을 착안, 카사 델 아구아를 ‘한국-멕시코 수교 50주년 기념관’으로 조성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씨는 주한 멕시코대사가 양국간 우호 증진을 위해 수교 기념관으로 조성하자는 것이다.

한편 이날 자리에 이선화(제주도



지난 6일 오전 공과대학 4호관 세미나실에서 ‘미래의 제주건축 주역들이 말하는 카사 델 아구아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의회) 의원과 이승택(문화도시공동체 쿠기) 대표도 참석했다. 이승택 대

표는 “제주도 건축학계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표명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카사 델 아구아에 대해 학생들이 참신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형준(건축학부) 교수는 “이 자리를 통해 카사 델

아구아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제주도 건축학계도 반면교사로 성찰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건축학계가 앞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건축학부는 앞으로도 카사 델 아구아에 대해 학생들과 다양한 활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김명지 기자

## 통합교양강의동 7일 준공

20억 투입... 2층에 ROTC 교육공간 마련



통합교양강의동이 지난 7일 문을 연 가운데 대학 보직교수들을 비롯해 학군단 관계자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통합교양강의동이 지난 7일 문을 열었다.

이번 신축된 ‘통합교양강의동’은 연건축면적 1181.8㎡ 규모의 2층 건물이다. 이는 제2운동장과 해양과학대학 4호관 사이 부지에 들어섰다.

1층에는 학사지원실·과제도서실·정보자료실·기자재보관실·시청각실, 2층에는 학군단장실·생활관·회의실·행정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사업비 20억원이 투입됐다.

허형진 총장은 축사를 통해 “좋은 시설에서 강의하고 수강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요람이 탄생하게 돼 더욱 의미가 깊다”며 “기초교육의 산실과 더불어 해방·해군ROTC 학생들에게도 보다 알찬 교육환경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미로공원, 발전기금 기탁

‘(주)제주김영미로공원(설립자 프레드릭 더스틴 전 제주대 교수)’이 지난 11일 대학발전기금으로 421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금은 관광경영학과 학생들이 여름방학 기간동안 김영미로공원에서 야간 개장 이벤트를 기획해 마케팅·판매·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직접 운영을 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이다.

김영미로공원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외국인 기금교수 재원으로 9200만원을 기탁했다. 또 2006년부터 지금까지 발전기금으로 3억 5135만원 등 총 4억 4335만원을 출연했다.

## 오는 14·15일 ‘제주 해양문화’ 국제학술대회

탐라문화연구원 주최... ‘2012 탐라대전’ 기념

탐라문화연구원(소장 윤용택)은 ‘2012 탐라대전’을 기념해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국제교류회관에서 ‘바다로 열린 세계, 제주의 해양문화’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대만, 미국(괌) 등지에서 전공학자들이 참석한다. 총 100여 명의 해양문화 관련 연구자들이 4개의 분과에서 주제별로 발표하고 토론에 참여한

다.

첫날 오전 10시 대회등록을 시작으로 신용하(전 서울대) 교수의 ‘탐라왕국의 건국과 해양문화 형성’을 주제로한 기조발제로 세미나 문을 연다. 이날 오후부터 첫번째 주제로 ‘제주문화의 형성 과정과 특징’, ‘아시아 태평양의 바다와 제주’, ‘제주의 해양자원과 해양문화’를 논의하게 된다.

## 외국어교육원, 사운드라이브러리 재단장

외국어교육원(원장 권영근)은 지난 8월 기존 사운드라이브러리에 1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멀티미디어 영어학습시스템을 구축해 9월부터 새롭게 단장했다.

이번에 구축한 멀티미디어 영어학습시스템은 ‘Speaking이 되면 세계가 보인다’는 모토하에 급변하는 외국어 학습 트렌드를 반영한 speaking 위주의 영어를 학습하는 콘텐츠이며, 수준 test를 통한 학습자의 수준 측정을 통해 기초부터 고급까지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축돼 있다.

특히,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에 대한 통합적 학습 결과에 대한 성취도 확인 및 음성인식 엔진을 통한 발음교정 학습 등 학습자 스스로 자기주도적 학습 여건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외국어교육원 사운드라이브러리는 현재 학습환경으로는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욕구 충족이 어려워 이용 실적이 저조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권영근 외국어교육원장은 “최신 설비로 학습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영어 학습으로 영어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 재일제주인센터 오는 14일 그랜드 오픈

일본에서 관련 인사 참석  
'Vann'의 축하음악회도

재일제주인과의 교류의 산실이 될 '재일제주인센터(센터장 이창익)'가 오는 14일 오후 2시 그랜드 오픈한다.

이날 재일제주인센터 2층 시청각실에서 열리는 오픈식에는 허형진 총장 및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도내의 주요인사와 이대호 재일본관동제주도민협회 회장, 이원철 관서제주특별자치도민협회 회장, 송고사 재일센다이제주도민회 회장 등의 많은 내빈이 참석한다.

그랜드 오픈 행사에는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한 창작음악단인 'Vann'의 축하음악회 및 '재일제주도민회의 발자취' 영상을 상영하여 참석한 내빈들에게 즐거움

과 감동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어 센터장의 개관 경과보고, 총장의 환영사와 전시실 관람 등의 행사로 진행된다.

재일제주인센터는 지하 1층 수장고와 지상 1층 재일제주인실, 김창인 회장 실천철학실, 연구원실, 행정실, 자료·전시실로 꾸며졌다. 수장고와 전시실 내부 인테리아까지 포함해 총 110억원의 비용이 투입된 가운데 재일동포 기업인인 김창인 회장이 30여억원을 쾌척해 건립됐다.

재일제주인실에는 그들의 역사와 생활기록 등의 유물과 재일제주인의 생활상 재현물, 재일제주인 관련 다큐멘터리 영상 등으로 꾸며져 이들을 기억하는 매개체가 된다. 또한 김창인회장 실천철학실은 재일제주인센터 건립에 큰 도움을 줬을 뿐만 아니라 인생관에 있어 분발을 만찬 김창인 회장이

의 실천철학과 그의 삶을 조명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이 외에도 자료·전시실에는 재일제주인들을 연구하기 위한 각종 연구서와 기록물들이 비치됐다.

센터는 앞으로 재일제주인에 대한 연구사업과 3·4세대를 위한 언어·역사·문화 교육사업을 비롯하여, 김창인 회장의 실천철학을 후학들에게 알리고 제주를 찾는 재외동포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인다.

이창익 센터장은 “앞으로 우리 센터가 재일제주인의 이민, 개척사를 연구하고 교류를 통해 재일제주인들의 정신을 기리는 산실이 될 것”이라며 “그랜드 오픈식을 통해 재일제주인과의 교류의 씨앗을 뿌렸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훌륭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 야생동물구조센터 홍보관 운영

야생동물구조센터(센터장 윤영민)는 지난 6일부터 거문오름에 위치한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에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자연유산의 가치와 보전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고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등의 위협으로부터 야생동물과 인간의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홍보관에는 야생동물구조센터의 일반현황과 제주노루의 골격 표본, 멸종위기종의 조류 박제 등이 전시됐다.

## 사람들

### 김민영 교수

‘세계 100대 과학자’로 등재

김민영(간호학과)교수가 지난 5일 세계적 인명기관 IBC로부터 2012년도 의학보건의 분야 ‘세계 100대 과학자’로 등재됐다.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The Marquis Who's Who in Medicine and Healthcare 2011-2012)에 등재된 데 이어, 2012년 영국의 국제인명센터가 발행하는 의학보건의분야 세계 100대 과학자(Top 100 Health Professionals 2012)에 등재됨으로써 그 동안의 노력과 연구 성과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김민영 교수는 중앙전문간호사로서 암환자의 삶의 질 연구 등에 대한 연구를 했다.

### 손오규 교수

서예대전서 입선

손 오 규(국어교육과)교수가 지난 4일 열린 제2회 의정부국제서예대전에서 ‘무서협송집구(撫西峽頌集句)’로 입선을 차지했다.

작품은 오는 9일까지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 전시된다.

손 교수는 『산수문학연구』, 『산수미학탐구』 등 8권의 저서와 여러 편의 공저, 많은 논문을 통해 산수문학과 산수미학을 연구해왔다.

또 퇴계학(退溪學)을 바탕으로 고전시가문학이론을 탐구해 퇴계시(退溪詩) 연구에도 업적을 쌓았으며, ‘퇴계학술상’(2011년, 퇴계학부산연구원)을 수상한 바 있다.



# “한미동맹 더욱 발전... 미래비전도 공유”

## 성 김 주한 미대사 강연

6일 '21세기 한미동맹' 주제로

성 김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6일 오후 2시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21세기 한미동맹(US-RO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은 평화연구소(소장 고성준)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학생과 교직원 등 200여명이 청했다. 다음은 성 김 미국대사가 강연을 통해 밝힌 주요 내용이다.

**한미 FTA는 새단계로 도약하는 기회**

한미동맹 관계의 대표적 사례인 경제·안보·글로벌 협력 분야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한국을 일컫어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한다.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이러한 말을 방증한다. 1960년도에 한국의 1인당 GDP는 1400달러, 대외 무역량은 10억 달러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다. 현재는 1인당 GDP가 3만 달러, 작년 12월 기준 대외 무역량은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이같은 가파른 한국의 경제성장은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



고 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미국의 교역량이 125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제7대 교역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한미FTA 체결로 인한 긍정적인 경제지표에 대한 기대감이다. 한국은 한미FTA의 영향으로 미국 교역량이 6% 증가하고, 3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된다. 미국도 약 100~120억 달러 정도 한미교역량이 늘 것이고, 일자리도 7만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미FTA 체결이 경제적 지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보다 더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접근할 수 있다.

**북한은 한국과의 관계개선이 먼저**

이처럼 양국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보 문제 역시 중요하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한미군사관계가 더욱 공고해야 한다. 미국은 여전히 한반도의 안보적 방

에 충실하고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한국과의 관계가 개선돼야 한다.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자국의 안전에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한국의 매우 강력한 국가이며, 유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양국 간의 군사 협력이 있어서 조율이 필요하다. 오는 2015년 말이면 미군이 갖고 있는 군사지휘권이 한국군에 이양된다. 한국은 앞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책임감을 느낄 것이다. 또한 한국은 주한미군의 통합재배치를 계획하고 있다. 미국은 이같은 과정을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나가고, 통합재배치 과정에 따라 효율성을 보일 수 있다.

한국의 국제사회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군사·경제·의료·환경 등 많은 부분에서 한·미간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도전과제들을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60년 전에 34만명의 유엔군이 한국에 파견됐었다. 하지만 현재는 한국의 국군이 아이티, 인도, 파키스탄, 수단 등 전 세계에 파병돼 있다. 또한 한국은 수십 년 전만 해도 국제원조국가였지만, 지금은 국제원조공여국으로 역사상 가장 빨리 입국이 바뀌었다. 한국은 눈부신 경제성장 등의 경험들을 개발도상국가에 가르쳐 주고 있다.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까지 포괄**

전 세계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간의 동맹관계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여 년 동안 미국 대기기상국의 위성사진을 한국과 교류하면서 오존층 파괴와 이상기후변화에 대해 공동연구하고 있다. 양국의 협력 관계는 민간사례에서도 보여준다. 지난 3월 LG화학은 배터리 생산 공장을 미국 미시간 지역에 설립했다. 이 기업은 오는 2014년까지 18억 달러를 미국 현지에 투자할 계획이다. 미국의 자동차회사인 포드와 GM이 LG화학의 고객사이기도 하다. 반대로 GM은 3년간 한국에 44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경제, 안보, 민간산업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이 한미동맹에 더욱 발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차세대 한미관계 가교역할 할 것**

지난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의 관계는 바로 정(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이 말의 의미가 특별하게 다가왔다. 한미 간의 유대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지금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200만명이 넘는다. 그리고 매년 미국에 오는 유학생이 10만명



6일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성 김 주한 미대사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21세기 당면 과제에 대해 강연했다.

을 넘어서고 있다. 제주대학교 학생들도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공부하고 있다고 들었다. 미국대사관은 앞으로 한국의 대학생들을 위해 학생리더십 양성, 원어민교사 양성 등 여러 가지 유익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청년들과의 교류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동맹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튼튼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는 양국 간의 미래비전도 공유해 나갈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한미동맹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취업률 Job아라

① 대학 취업률 평가의 그늘

취업률, “실상과 달리 왜곡” 의견도… 실질 취업률 제고가 중요

제주대의 취업률이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3.2% 떨어진 47.7%를 기록했다. 이는 10개 지방거점국립대 중에서 9위다. 취업률이 떨어진 원인은 무엇일까?

**학생들의 취업 현황**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제주대는 2018명의 졸업자 중 881명만이 취업을 했다. 단과대 학별로는 수의과대학이 72.4%로 가장 높은 반면, 사범대가 21.4%로 제일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또 학과별로는 에너지공학 과가 75%로 전국 3위, 사학과가 61.9%로 전 국 4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간호학과는 전국 최하위권, 인문홍보학과는 49개 대학 중 40 위에 랭크돼 있다.

취업률과 함께 대학원 진학률도 4%로 매우 낮아 졸업생들의 절반 가까이가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진정성 있는 취업 지표인가**

위에서 나열한 지표만 보면 제주대 학생들의 미래는 암울해 보이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는 실제 취업률이라고 보기 어렵다. 졸업한지 1년 이내의 취업만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국가고시를 재수, 삼수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다가 졸업 이후 6월 1일자가 지나면 취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합격했다 하더라도 발령이 6월 1일 이후일 경우에도 취업률에 포함

되지 않는다.

즉,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개한 자료는 일괄적인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업률을 보여주는 성격이 강하다.

**학생들의 체감 취업률**

그렇다면 현재 제주대의 실질적인 취업률과 학생들이 체감하는 취업 분위기는 어떻게.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취업전략본부에서는 공시한 취업률보다는 높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제주도의 경제구조의 특성을 들고 있다. 제주도 특성상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업이 적다 보니 공무원에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2012학년도 신입생 설문조사에서도 25%가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답했을 정도로 저학년 때부터 공무원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듯 학생들이 공무원을 선호하다 보니 국가고시를 재수하는 경우도 많아진다. 특히 사범대는 임용고시 재수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사범대는 취업률이 21.4%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사범대 앞 현수막에는 임용고시 합격자가 30~40명 정도가 적혀 있다. 게다가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업에 취직하는 학생들도 많다. 사범대학의 실질적인 취업률은 공시하고 있는 취업률보다 훨씬

지난달 23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558개 대학(전문대·4년제·일반대학원)의 취업률을 공개했다. 제주대는 나 그룹인 졸업자 2000명 이상 3000명 이하 27개 대학에서 취업률 47.7%로 23위를 기록했다.

이에 <제주대신문>에서는 우리 대학 학생들의 취업문제와 관련한 현안과 대안에 대해 8차례에 걸쳐 기획연재 한다.



지난 5월 18일 제주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2012 청년 잡페어(Job Fair)'에서 학생들이 모의면접을 보고 있다.

선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렇게 취업하는 학생들은 대개 취업률 산정 기간 후에 취업을 하기 때문에 취업률 산정 당시에는 미취업자로 분류돼 취업률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또 일부 학생들은 취업에 관한 분위기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고시나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마음만 먹으면 취업은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인

다. 하지만 자신이 진정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총학생회의 입장**

총학생회는 공시된 취업률은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취업률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건강보험만 가입돼 있으면 취업을 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허점이 있는 공시 취업률보다는 '졸업생들이 얼마나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을 가졌느냐'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 있다면 자신감을 갖고 몇 번을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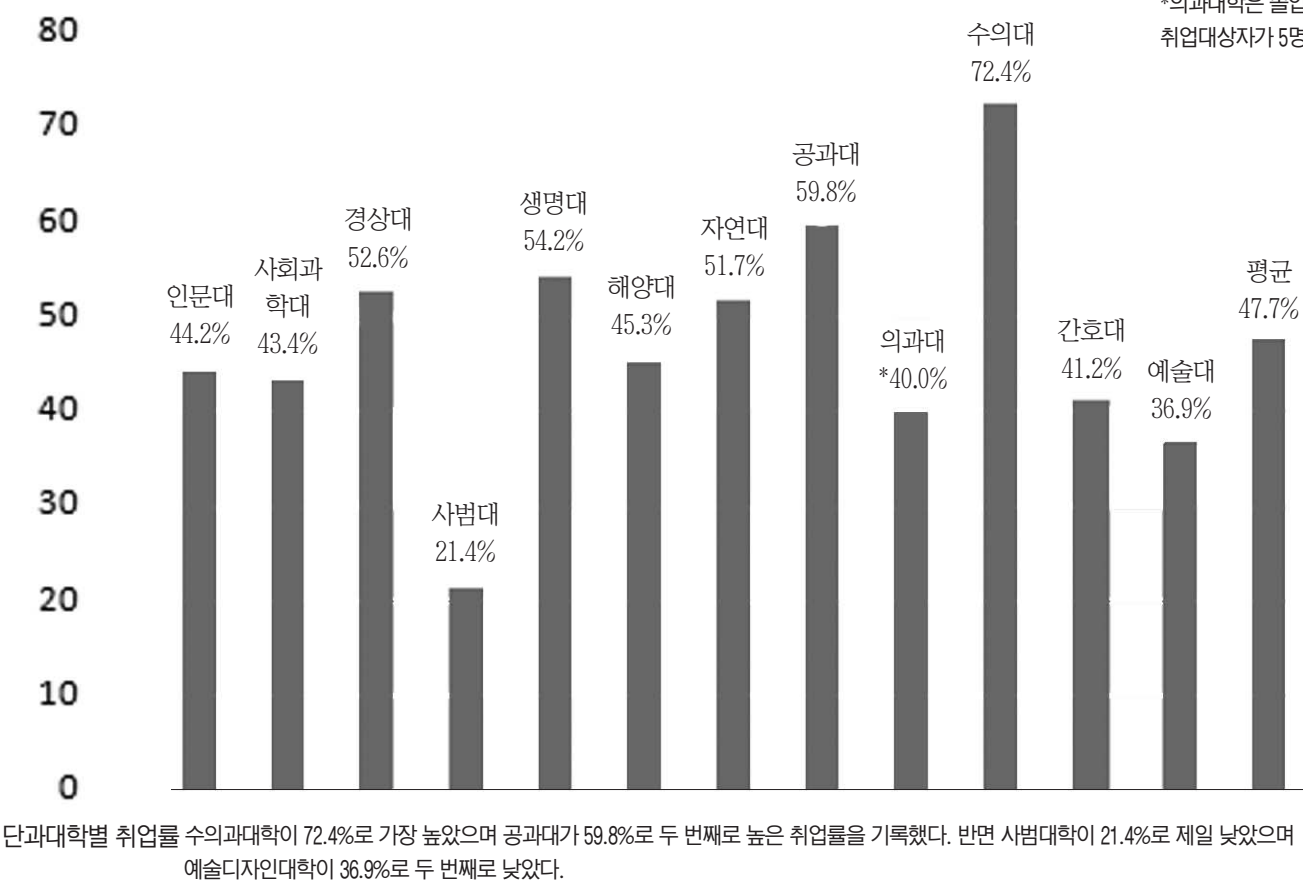
정재우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에서는 요즘 학생들의 제일 큰 고민이 취업이라는 점에 공감해 취업 관련 공약을 많이 내걸었다”며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알려주고 인턴 등을 통해 경험을 쌓게 해줘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총학생회가 주체가 돼 잡 페어를 개최하는 등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지만 한계도 있다”며 “취업전략본부, 기초교육원의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학년들의 취업도 중요하지만 저학년들이 취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차근 차근 준비를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학생회 임원을 하기 전 취업을 위해 인턴 등 다양한 경험을 해보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취업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자기 신념을 가진 자가 행복하다

변화는 나 자신이다

김정형 딜라이트 대표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03년에 온라인쇼 핑블로 첫 창업을 했다. 당시 한창 유행하던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등을 싸게 구입한 후에 마진을 붙여서 온라인에서 파는 일이 었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돈을 제법 벌었다. 하지만 오직 돈을 버는 것만 생각하 면서 산다는 것은 꽤나 공허했다.

학교에 가서 학업을 마저 해야겠다는 생 각이 든 것은 대학 입시가 끝나고 동기들이 대학에 들어간 뒤 1년이 지나서였다.

다시 공부를 시작해 07학년도 2학기부터 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그동안 모아온 돈이 있어서 돈 걱정은 좀 덜하고 공부에 전념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막상 공부를 해 보니 학업을 통해서 진리나 삶의 의미에 좀 더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창업을 기웃거리게 됐다.

1년반 정도 경영학 공부를 하다가 2008년 사회적기업 연구모임인 넥스터스를 만들었다. 넥스터스는 당시 미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던 사회적기업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이를 어떻게 국내에 적용할 지를 고민하는 그런 모임이었다. 여기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우선 드는 생각은 '왜 이런 걸 시작하게 됐을까'다. 돈을 벌어서 내가 잘먹고 잘사는 것 말고 뭔가 다른 게 없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나중에 뭐가 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뜻이 맞는 친구들과 넥스터스를 만들고 여기를 통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때마침 외국에서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고 해외 사례들이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한 것이 동기부여가 됐다. 넥스터스를 통해 경로당에 봉사활동을 다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노인들이 150~200만원을 호가하는 보청기를 구입하는 것을 보았다. 보청기 사업을 구상하면서 인도의 사회

적기업인 아라빈드 안과병원을 롤모델로 떠올렸다.

2009년 4월 중소기업청에 저가보청기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사업지원금 2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자금을 시드머니(Seed Money)로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2010년 7월 문을 연 딜라이트는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회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이름 그대로 '세상에 즐거움을 주는 기업'을 지향한다. 보청기 기술력 확보를 위해 연세대 내 의료기기 연구센터와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미리 사업제안서도 썼고, 몇 차례 창업 경험도 있었으며, 창업 동기도 뚜렷했지만 역시 사업은 쉽지 않았다. 보청기를 자체 기술로 만들려다보니 첫 모델이 나오기까지 꼬박 1년이 걸렸다.

우리 기업은 보청기를 34만원에 판다. 기존 가격인 150~200만원 보다 80%나 저렴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청각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에 맞춰 가격이 책정

됐다. 그래야만 이들이 개인 부담 없이 보청기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표준형 보청기를 개발하고 생산원가와 유통비용, 이익을 줄였다. 인터넷으로 먼저 주문받고, 일주일 단위로 대량생산하는 방식으로 재고를 없앴 것이 비결이다. 게다가 아무에게나 보청기를 팔지도 않는다. 나이가 65살 이상이거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이하여야 고객이 될 수 있다. 저소득층에 저렴한 보청기를 보급한다는 원래 의도를 실현하려고 할 수 없이 조건을 붙이게 됐다.

회사 이름을 알리는데 성공했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 사업만으로는 결코 이윤추구를 할 수 없었다. 사실 딜라이트의 보청기 사업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보청기 사업을 통해 한국에서도 소셜벤처, 또는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다. 보청기 사업 외에도 다른 분야의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어찌보면 보청기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의 첫 발을 내딛었을 뿐이다.

무엇을 이루겠다는 꿈이 없이 단지 취업만이 '목표'인 또래 대학생들을 보면서 우선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제주권 서울이건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선택이 공무원 시험 준비이다. 주변에서 쉽게 하는 것을, 막

인터뷰 임재운 취업전략본부장

“취업·교육서 실질 도움줘 취업률 향상”

-취업전략본부의 사업 방향에 대해 설명해 달라.

“취업전략본부는 취업을 증진에 이바지하고 취업률과 관계된 기관이나 부서와의 협조 등을 하는 기관이다. 종전까지는 취업을 증진을 위해 이력서 작성 방법 등 취업역량강화사업에 중점을 뒀었다. 하지만 올해 취업률이 떨어지면서 사업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앞으로는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다소 축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 지도에 중점을 둘 생각이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 지도는 취업 준비생이 각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일일이 도와주는 것이다. 4학년 재학생, 졸업한지 1년 이내의 취업률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그렇다고 1~3학년과 졸업한지 1년 이상의 학생들의 취업에 관심을 갖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들을 우선으로 하되 1~3학년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취업 준비를 도와주고, 졸업한지 1년 이상의 학생들의 취업에도 적극적으로 돕겠다.”

-지난 3월 22일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전략에 학

“학생 참여를 높이고

개개인 및 단과대마다 적합한 취업 역량강화사업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다.

“학생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직접 찾아가려는 시도를 했다. 대개 취업전략 본부에 방문한 학생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방문하지 않은 20%의 학생들도 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먼저 다가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취업전략본부 직원들이 석사과정 학생에게 전화해 취업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다. 이렇듯 먼저 다가서서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개개인 및 단과대마다 적합한 취업역량강화사업을 위해 취업전략본부 사업비 중 30% 정도의 비용을 썼었다. 하지만 단과대학마다 쪼개다 보니 지원금이 너무 적어 비효율적이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취업전략본부에서 전액을 관리해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단과대학에 지급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인턴제도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인턴은 취업률을 높이는데 있어 중요한 제도 중 하나다. 그래서 인턴을 경험할 수 있는 기업을 늘리는데 주력하려고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센터(JDC), 제주테크노파크(JTP) 등과 연계해 학생들이 도내에 있는 다양한 기업에 인턴



을 체험토록 할 계획이다. 또 도외에서 인턴할 수 있는 기업도 알아볼 것이다.”

-허창진 총장이 취업률 70%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허창진 총장이 임기를 시작한 2009년과는 취업률 산정 방식이 크게 다르다. 그 당시 취업률에는 건강보험가입 등이 없었고 단순히 취업을 했느냐만 봤다. 하지만 이제는 취업률 산정에 건강보험에 가입을 한 취업생만 포함이 된다. 또 졸업한지 1년 이내의 학생들의 취업률만 고려한다. 그러다보니 취업률이 예전에 비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타 국립대도 마찬가지이다.

제주대의 실질적인 취업률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시한 47.7%보다 훨씬 높다. 하지만 학교 외부에서는 이 취업률이 제주대의 취업률이라고 본다. 때문에 공시하는 취

업률을 높이는 방안도 구상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원진학을 향상, 학내 취업에서 취업률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을 우선선발하고 1년 이상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7% 정도의 취업률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취업전략본부에서 취업상담, 플랜드 등 적성 테스트 등도 하는 것으로 안다.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해 아쉽다. 적성 테스트는 저학년에 받을수록 취업에 더 도움이 되는데 고학년이 돼서야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다. 저학년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취업률은 대학을 평가하는 가장 큰 지표다. 이 평가 잣대가 꼭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대학의 재정지원 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취업전략본부에서는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학생들과 교수 및 대학본부 모두가 힘을 합쳐서 취업률을 높였으면 한다.” 김동현 기자



“

‘너희가 무슨 기술이 있다고

창업이나’는 구박에서부터,

‘다단계 아니냐’는 냉소까지…

그렇수록 어디 던져놔도 살아

남을 수 있는 야생초가 됐다.

”



# 연변 교육의 핵심은 ‘소인수학급교육’… 교육혁명 성공해야

학술기고 연변: 오래된 미래, 새로운 미래



이인회  
교육학과 교수

필자 일행은 지난 8월 19~22일, 중국 연변 대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연변지역의 3개 교육청과 교사연수학교 및 중학교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 오래된 미래 발골

연변의 본래 명칭은 ‘연변조선족자치주’로 길림성의 동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연길, 용정, 훈춘 등의 6개 시와 2개 현으로 이루어진 중국의 행정구역이다. 연변은 남한 크기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지만 동으로는 러시아, 남으로는 북한과 바로 맞닿아 있는 요충 지역이다. 연변의 총인구는 218만 명 정도이며 11개 민족이 거주하고 있고, 조선족은 38%인 83만 명 정도인데 이는 중국 전체 조선족의 40%에 해당한다.

연변은 1952년 소수민족자치구로 편성되었다가, 1955년에 자치주로 변경되어 민족자치가 인정되었으며, 올해 9월 3일로 설립 60주년을 맞았다.

인구 50만 명의 연길시는 연변의 수도로서 오늘날 연변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교육의 중심지이다. 그러나 연변의 역사적 뿌리는 연길시로부터 지적에 있는 유서 깊은 용정시이다. 용정은 청나라 관할지역의 일부분으로 봉금령이 내려진 무인지대였다. 1860년대부터 조선의 가난한 농민들이 두만강을 건너 이 땅을 일구기 시작하였고, 1877년부터 마을을 형성하여 용정은 점차 조선에서 연변지역으로 들어가는 교통의 요

지가 되기도 했다.

1900년대 초, 이상설과 이동녕을 비롯한 항일민족운동가들이 국권회복과 항일독립운동의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이주하면서 용정은 역사에서 부각된다. 항일운동의 발단은 1906년 서전서숙 설립으로 시작되어 명동학교 등 사립학교 설립운동으로 전개되었다.

당시 민족 운동가와 선교사들이 설립한 사립학교는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이주민들에게 근대 교육을 실시하고, 한편으로 김좌진, 나운규, 윤동주 등 많은 항일투사를 육성해 민족해방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다. 1933년 말 용정에는 무려 27개의 학교, 5,896명의 학생(용정 인구의 39%)이 있었으며, 당시 주택의 70~80%가 유학생들의 하숙집이었다고 전해진다. 이렇듯 용정은 연변지역에서도 근대 민족교육의 발상지였으며 광복 이전까지 항일민족해방의 전초기지로서 오늘날이라는 미래를 가꾸어온 역사의 현장이다.

## 연변의 교육 ‘혁명’

용정으로부터 형성된 연변의 민족교육과 교육이상은 중국에 널리 알려져 연변은 일찍이 ‘교육의 고향’으로 칭송되어 왔다. 그러나 연변교육은 중국의 개혁·개방 및 한중 수교와 이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를 통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최근 들어 연변의 조선족 83만 명 중 절반은 한국에 그리고 20만 명 정도는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중앙일보, 2012.9.4).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는 연변교육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교 통폐합을 통해 조선족 학교는 213개에서 112개로 감소되고, 교원들은 이직 또는 이탈하고, 학생의 65%이상은 결혼가정자녀가 되면서 연변교육의 생태환경은 파괴되었다. 교육의 질적 하락에 따라 학부모의 불만족이 초래되었고, 중국어



연길시 제10중학교(조선족학교)에서 찍은 사진.

학습에 대한 요구와 함께 많은 조선족 학생들이 연변내 한족학교로 전학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환점이 ‘연변 교육 혁명’이고, 그 핵심은 소인수학급교육에 있다. ‘소인수학급교육’이란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이하로 제한하는 소규모 학급교육을 의미하지만, 이를 단순히 교육개혁이라고 부르지 않고 ‘교육혁명’이라고 명명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이천민, 2009: 그의 아들은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중).

첫째, 소인수학급교육은 2000년 용정과 연길의 2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운영되고 2005년 11개 학교로 시범확대와 실험을 거쳐, 2007년 연변지역 전체 조선족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된 핵심 교육정책이다.

둘째, 소인수학급교육은 교육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연변교육이 가지고 있던 ‘특유의 질과 특성’이라는 강점에 초점을 두었다. 여기서 특성이란 민족문화와 민족교육의 정체성이고, 특유의 질이란 소규모학급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의미한다.

셋째, 소인수학급교육은 ‘학생들의 행복한 학습생활’을 목표로 교사중심의 교육에서 학생중심의 교육으로, 강의중심의 수업에서 학생중심의 학습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소인수학급교육은 학습주도권을 학생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교육패러다임의 전환이며, 연변 조선족교육의 재도약을 위한 혁신의 출구이기도 하다.

## 새로운 미래 만들기

1906년 서전서숙의 설립으로 형성되어온 연변의 교육이상은 1세기를 지나 2007년 연변조선족자치주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인수학급교육을 전면 실시한 2년 후인 2009년에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연길시 조선족학생의 학업성적이 한족학교를 추월하고, 2010년 학업성취도평가에서 한족학교를 초월한 후 지

금까지 앞서고 있다.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도 회복되고, 한족학교에 다니던 조선족학생들이 조선족학교로 돌아오기 시작하였으며 한족으로서 조선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사실 이 교육혁명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그리고 교육혁명의 핵심인 민족문화 교육의 정체성과 소규모학급교육이 더욱 발전적인 성취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동력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교육은 단순히 사회변화의 영향만을 받는 종속변수가 아니다. 오히려 교육은 사회환경 속에서 독립변수의 영향을 전달받아 종속변수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변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독립변수를 상정해야 하며 내외적 변인들이 동력으로 상호작용해야 한다. 서전서숙이 충만한 내적 요인과 외적 동력을 바탕으로 근대교육의 명동학교로 탈바꿈되었듯이, 연변의 교육혁명은 축적된 내적역량의 바탕 위에 외적 동력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용정이 오래된 미래(오늘의 교육이상)를 배태하여 우리의 말과 글 그리고 문화를 지켜왔다면, 오늘날의 연변은 세방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새로운 미래를 꿈꿔본다. 제주와 연변의 교육적 만남이다. 이는 제주대학교와 연변대학교의 더욱 밀착된 학술 및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우리대학교 사범대학, 교육대학 및 교육대학원과 연변 교육현장과의 맞춤형 협력을 의미한다. 다행히 1990년대부터 그 기반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육지부의 대학들과 경쟁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관심과 비전이 요구된다.

연변의 훈춘은 동북아의 홍풍으로 부상하고 있다. 제주는 동남아의 허브를 꿈꾸지 않는가?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제주와 연변은 대동아시아로 나가는 길목이다.

## 한권의 책

# 숨은 권력자들의 황제뽑기

권력의 달콤함은 그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가 보다. 매번 치러지는 여러 종류의 선거마다 부나방처럼 사람들이 달려 들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형태들을 바라보면 말이다.

금년 말, 우리는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의 선출을 앞두고 있다. 민의에 의한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는 점, 그리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과거의 절대자인 ‘황제’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겠지만, 현재 한국의 대통령 역시 ‘제왕적 대통령’이라 칭해질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과거 동아시아 역사에 있어서 황제는 지고무상(至高無上)한 통치자이자 천명(天命)을 받은 자로 인식되어 절대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였다. 황제제도는 중국최초의 통일제국인 진(秦)에서 시작되어 중국최후의 왕조인 청(淸)이 붕괴되는 신해혁명으로 인해 폐지되기까지 2천년이 넘는 장구한 시간 동안 그 체제를 유지해온 통치절서였다. 동아시아의 주변국가 역시 중국의 황제제도를 모방한 정치제도를 시행하였다. 즉 근세이전까지 변하지 않고 유지되어온 동아시아 정치제도의 핵심이었다.

저자가 서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황제제도는 원칙적으로 현임황제가 재임하는 동안 제위를 이어 받을 후계자를 지정한다. 이른바 ‘태자 세우기’이다. 이는 당대의 절대권자가 정하는 것이므로 절대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관찰’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태자를 낙마시키기 위한 음모를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현임황제가 후임황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죽는 경우였다. 누구를 후임황제로 세울 것인가? 당대의 권력을 움켜쥔 집단 혹은 개인에게 있어서 이는 자신과 그 주변집단의 부귀영화에 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숨과도 직결되는 문제였다.

이와 같은 경우는 중국의 역사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였는데, 대부분은 현임 황제가 후사(後嗣)가 없어 양자를 들인다는 혹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후계자를 결정하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황제가 갑자기 죽었을 경우였다. 일단 황제가 죽게 되면 누구라도 황제자리에 세워야 했다. 당시의 정치제도 하에서 황제가 없는 경우는 상상할 수도 없게 문제이다. 그렇다면 누가 황제를 세웠을까? 그것은 바로 당시 조정을 이끌어가던 권력자들의 몫이었다.

당연히 태후를 위시한 외척세력, 군



권종달 지음  
『황제뽑기』

벌, 혹은 환관집단 등등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등장하였던 당시의 권력자들이 황제를 뽑는 원칙으로는 ‘종묘’와 ‘사직’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꼽았다. 또한 자신들은 이 대의명문을 철저히 지키며 후임 황제를 선별하였다고 공언한다. 과연 그러했을까? 따지고 보면 이 ‘대의명문’은 명분상 필요한 대외 발표용에 지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고려하였던 부분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이해관계였다.

이 책은 전한(前漢)시대-중신들의 황제뽑기, 후한(後漢)시대-황태후의 황제뽑기, 삼국(三國)에서 진(晉)시대-격동하는 시대의 황제뽑기, 남조(南朝)시대-꼭두각시를 황제로 뽑기, 북조(北朝)시대-무장세력의 황제뽑기, 당(唐)시대-환관들의 황제뽑기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시대적으로 보이는 황제뽑기의 특징을 잘 간추려 내고 있다.

지은이는 평생을 황제의 정치교과서라 불리는 ‘자치통감(資治通鑑)’과 사상사(思愼史) 연구에 평생을 헌신한 저명한 역사학자이다. 또한 최초로 ‘자치통감’을 한글로 완역하고 출간(전 31권)한 장본인으로 자치통감의 방대한 자료 속에서 시대의 권력자들이 황제를 세우는 과정을 상세하고 쉬운 설명과 함께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다.

역사학의 대중화에 헌신해 온 노(老) 역사학자의 꿈과 열정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지은이는 말한다. “단순한 과거 사실은 쓰레기다. 우리가 역사에서 이 변화의 경향을 읽어낼 수 없다면 역사는 쓸모없는 쓰레기가 될 것이며, 반대로 이 변화의 경향을 파악한다면 이 쓰레기는 재활용되어 명품의 부속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역사 사실이란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에게 실용학본이 될 수도, 비실용 학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가오는 ‘대통령뽑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책을 통해 살아 숨쉬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란다.

정창원  
사학과 교수

## STS 과학문화 시사칼럼

이 칼럼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후원으로 제주대학교 과학기술사회연구센터에서 기획 운영합니다. STS연구센터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과학기술사회연구센터 홈페이지(<http://sts.jejunu.ac.kr>), 트위터(<http://twitter.com/jejusts>), 페이스북(<http://facebook.com/jejusts>).

# 과학의 양면성에 대한 성찰-인문학적 과학을 꿈꾸며



장승희  
초등윤리교육전공 교수

1990년, 초임교사 시절 학교에는 세 대의 전화가 있었다. 교장실, 행정실, 그리고 교감 선생님 책상 앞. 가족들 혹은 학부모 전화가 오면 교감 선생님 앞에서 전화를 받아야 했고, 급한 전화는 수업 중 스피커로 “○○에게 전화왔어요.”라는 멘트가 연신 흘러나오곤 했다.

수업하면서 학생들에게 머지않아 사람들이 개인 전화기로 통화할 수 있을 거란 말을 했더니 전화선은 어떻게 할 거냐며 모두 웃은 적이 있었다. 무선이 없을 때였으니 그런 고민은 당연했다. 당시 성직처럼 컴퓨터가 386이었고 도트프린터로 성적표를 뽑을 때면 교사가 앉아 종이를 접어줘야 했고, 퇴근할 때는 두 대의 컴퓨터를 보호하기 위해 쇠창살을 내리고 자물쇠를 채워야 했던 시절이었다.

이런 모습은 이제 전설이 되었고, 소통과

정보처리에서 속도와 효율성이 얼마나 발전

했지가 관심사가 되었다. 호이정가의 이른바 호모 루덴스(Homo Ludens)에 걸맞게 오늘날 사람들은 호모 스마트쿠스(Homo Smartcus)가 되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 지하철에서 잠자는 사람과 연인들, 술 취한 사람 빼고는 모두 이 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카카오톡을 하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웹서핑을 하고 있다.

심지어 카페에서는 연인이 데이트를 하면서 각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대화를 한다. 그들을 보며 “왜 만날까?”라는 아주 소박한 의문을 가진 적이 있다. 이제 멀리 어답터는 진화하여 다양한 노마드(nomad)족으로 변신한다. 그들은 한국에 머무르지 않고, 부유(浮游)하며 산다. 런치 노마드, 커피 노마드, 잡 노마드, 디지털 노마드까지 다양한 노마드들이 생겨나고 있다.

과학기술 시대에 살면서 나의 가장 큰 고민은 멀리 어답터(early adopter)가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어답터’로나마 생존할 것인가에 있다. 결코 내가 인문학에

발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기계를 혐오하는 문명 거부자는 더더욱 아니다. 지식 중심지와 먼 거리인 제주 아일랜드에서 연구도 어느 정도 하고, 열

심히 교육에 몰두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과학기술의 덕택이다. 몇 년 전부터 주변 지인들 거의가 휴대폰을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정보검색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2G폰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출장을 가 지하철을 타거나 비행기를 탈 때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정도이다. 이러한 나만 기계지(機械癡)로 떨어진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진다. 내가 예상했던 과학기술의 양면성-순기능과 역기능-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 두려운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처음 인터넷 게임이 보급되면서 학생들이 게임을 즐기기 시작할 때 나중에 큰 독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인터넷 교육을 받으며 ‘즐거웠기’ 방법을 배우고 교사를 책상마다 인터넷이 놓여 질 때 이제는 대화가 적어질 것이 걱정되었다.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과 인터넷 치매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게다가 과학기술의 격차는 빈부 격차와 겹쳐져 현실에서 소외(疎外)를 양산하고 있다. 코론족, ‘히키코모리(引き籠もり)’ 등 비사회적 은둔자들의 ‘문자지 범죄’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과학기술은 인류문명의 발전, 속도와 효율성에서 엄청난 유용함을

주고 있지만 삶의 질 측면에서 보면 발전만은 아닌 것 같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날 학문은 과학과 동의어로 쓰인다. 과학의 백과사전적 의미는 ‘자연세계에 대한 지식’이지만, 이것은 자연과학에 국한된 말일 뿐이다. 현대 모든 학문들은 과학을 지향하며, 과학을 표방한다. 자연과학은 물론, 사회과학을 넘어 인문학마저도 과학적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하다.

그러나 원래 학문을 의미하는 용어인 ‘science’는 통합적 지식을 의미했고, 동양의 학문도 문사철(文史哲)을 통합한 형태였다. 19세기 과학의 발달과 학문 분과화의 가속화로 학문들은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인간의 본질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에 맞닥뜨렸다. 그래서 월슨이 ‘사회생활학’에서 ‘통섭’을 말한 이후 통합학문, 융합학문이 등장하였고, 이제 학문의 융복합이 당연시되고 있다.

기술은 “어떤 것을 만들거나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법에 대한 체계적 연구”라고 되어 있다. 이 점에서 기술은 과학적 지식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과학적 지식이 바탕이 되고 그것이 기술로 연계되어 인간의 삶에 유용한 것들로 만들어진다.

오늘날의 삶은 과학기술 없이는 생존도 유지도 불가능하다. 이게 현실이다. 그러나



강의에 열중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웹서핑, 메신저 등을 하고 있는 학생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학에서 기술로 전환하는 것도, 기술에서 삶의 도구로 바꾸는 것도 인간이며, 그것을 인간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인간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그것을 잊고 있다. 궁극적으로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인간에게 그것이 수단과 도구로서 제대로 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다.

강의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학생들, 사람들을 만나고서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친구들, 부모와 대화하면서도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을 하는 아이들, 우리는 스마트폰에 대하여 어떤 예의를 지녀야 할까? 궁극적으로 과학기술

은 인간을 위한 것이며, 우리 가치의 궁극에 존재해야 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가치와 의미이다.

이제 스마트폰과 멀어지는 연습을 해야 할 때다. 스마트폰을 쉬게 하고 나의 삶을 아날로그로 기록하는 연습도 해보자. 인간과의 관계에서, 대상과의 관계에서 즉각적이고 즉물적인 인간이 되기 전에, 우리는 사라지고 있는 기다림과 설렘의 의미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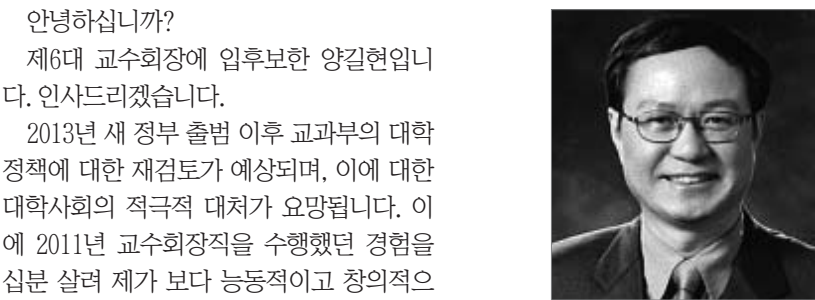
인간이 과학기술의 노예가 아니라 주체가 되는 길, 그것은 우리가 왜 기계를 만들어냈는지, 인간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 ■ 제6대 교수회장 임후보자 소견서

## ◇ 기호 1번 양길현 교수

## “대학본부와의 비판적 거버넌스 구축”



안녕하십니까?  
제6대 교수회장에 임후보한 양길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3년 새 정부 출범 이후 교과부의 대학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학사회의 적극적 대처가 요망됩니다. 이에 2011년 교수회장직을 수행했던 경험을 십분 살려 제가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우리 대학의 미래를 찾아나서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학교가 교수님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고자 지난 제4대 교수회는 나름대로 자유와 책임이 살아 숨쉬는 터전이 되고자 애를 많이 썼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3월에 교과부의 일방적인 총장직선제 폐지 추진에 항의하여 사퇴하였으나, 다시 교수사회의 자긍과 자율을 높이는데 하나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계획했다가 못다 한 일을 2013년에 하고 싶기도 하고, 또 학내 안팎에서의 여러 경험을 살려 교수회-평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높이고 또 우리 대학교가 교수님들이 교수회를 통해 ‘즐겁고 보람 있는’ 곳이 되도록 하는 데 다시 헌신하고 싶은 것입니다.

(1) 성과급 연봉제·총장 공모제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 경주  
2011년 1년 동안 교수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성과급 연봉제·총장 공모제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한 반성이 큼니다. 한편으로는 지난 시행착오를 거울삼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2013년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의 의견 조율과 창의적 대안 제시를 통해 교수사회의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성과급 연봉제·총장 직선제 등의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고자 합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제주대만으로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4대 교수회 때 전국국공립대학 교수회연합회에서 부회장과 감사를 맡았던 경험을 살리면서 제6대 교수회에서는 전국국공립대학교연합회에서의 보다 더 큰 목소리를 갖고 제주대학교 교수님들의 생각을 정부에 전달하는 통로이자 조인 기구로서의 역할을 적극 찾아 나서고자 합니다. 특히 총장 선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분위기에서 총장 후보 선출에 관한 제도개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하는 데 온갖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 평의회 위상 및 심의권 강화  
<1> 평의회 구성 개선 : 2012년 3월 19일 교수회 정기총회 때 제언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제주대학교 평의회의 구성을 보다 다원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대학평의회로서의 위상과 권한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직원은 여직원 대표 1인 포함 3인으로, 학생 대표도 총학 1인과 대의원회 1인 포함 2인으로 그리고 조교 대표 1인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나고자 합니다.

<2> 교수처장 등 주요 보직 인사에 대한 평의회 심의권 강화 : 대학본부의 주요 보직 중 총장 유고시 대행을 맡게 되는 교수처장과 상징적 차원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는 부총장-대학원장에 대해서는 평의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평의회 심의권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 대학교의 주요 지침에 대한 평의회의 심의권 확대 : 평의회는 기성회 예결산과 각종 규정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가운데 간혹 대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지침은 평의회 심의 없이 통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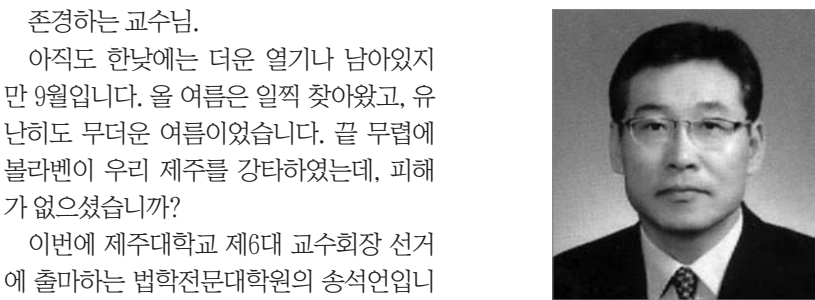
그래서 평의회에서 요구할 때는 대학교의 지침도 사전에 평의회 내의 지침위원회의 의견을 거치든가 아니면 평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할

### <주요약력>

△윤리교육과 교수  
△서울대 정치학 학사 △서강대 정치학 석사 △서울대 정치학 박사  
△2010.11~2012.3 제4대 교수회장  
△2005.9~2007.8 제주대 평화연구소 소장  
△2005.7~2009.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2004.9~2008.2 동북아시아위원회 전문위원

## ◇ 기호 2번 송석연 교수

## “교수들의 자존회복·권익옹호에 진력”



존경하는 교수님.  
아직도 한낮에는 더운 열기가 남아있지만 9월입니다. 올 여름은 일찍 찾아왔고,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끝 무렵에 불라벤이 우리 제주를 강타하였는데,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주대학교 제6대 교수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송석연입니다.

저는 최근에 초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맡아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하다가 평교수로서 교육과 연구에 충실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우리 대학은 건학 60년이라는 연륜과 양적 발전이라는 성장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이 정부의 간섭과 통제로 심하게 훼손되어 대학자치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우리 교수들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는 등 못하지 않은 외적 환경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평교수 간, 노장과 소장층 교수 간, 교수와 직원 간 등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이 우리의 앞길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갈등 상태를 직시하면서 이제는 비로소 ‘소통하고 해결하는 교수회’를 앞장서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감히 교수회장 출마표를 던지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지난 번 총장직선제 폐지 문제와 관련하여 교수회 임원진이 전원 중도 사퇴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당시, 보궐선거에도 출마하려는 의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경우는 일종의 ‘비상시국’인데 과연 새로운 교수회장 체제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어 출마의사를 접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짧은 임기 내 그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야말로 우리 대학 발전의 주제인 교수회가 더 이상 없으나 마나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수님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옹광로써 옹호하여 단단한 철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저에게 교수회장으로 봉사할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일들을 추진하여 임기 내 분명하게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주대학교 교수! 그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표를 뽑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교과부의 허울뿐인 총장공모제로 인한 낙하산 인사 등 변형된 총장임명제를 방관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제도로서의 총장직선제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최대한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교수들의 대표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저는 교수회가 중심이 되어 우리 대학의 실정에 맞고 적용 가능한 공모에 의한 총장임용 후보자 선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공모에 의한 후보자 검증 및 선발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교수님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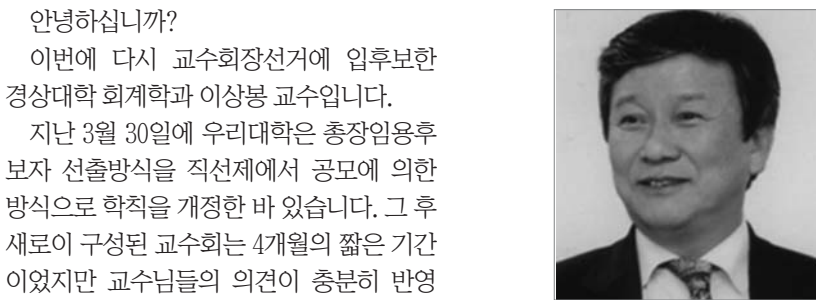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총장임용 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역량 있는 대학 내·외부 인사의 후보 발굴 및 영입 그리고 선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교수회가 중심이

### <주요약력>

△법학과 교수  
△중앙대 법학 학사 △중앙대 법학 석사 △중앙대 법학 박사  
△2009.3~2011.3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2006.11~현재 제주대 인사위원회 위원  
△2006.3~2008.12 제주국제자유도시 법무서비스 인력양성 사업단장  
△2006.1~현재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처장

## ◇ 기호 3번 이상봉 교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다시 교수회장선거에 임후보한 경상대학 회계학과 이상봉 교수입니다.  
지난 3월 30일에 우리대학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출방식을 직선제에서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학적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새로이 구성된 교수회는 4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교수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리고 공정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교수회장 보궐선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드린 공약을 이행하기에 6개월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공약의 이행을 조금씩 뒤로 미뤄야 하는 아픔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 교수님들께 못 다 이룬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하여 다시 교수회장에 임후보하였습니다.

제가 차기 교수회장을 맡게 되면 대학운영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건전한 비판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교수회의 품격을 가일층 높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첫째, 교수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공정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작업을 마무리하여 유능하고 훌륭한 리더십을 갖춘 총장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차기 교수회는 우리 대학의 발전을 책임질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정을 만들어 적용함으로써,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집단 간의 갈등을 해소시켜, 교수님간의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나겠습니다.

둘째, 우리 대학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총장상(總長像)에 대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출하기 때문에 대학구성원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바람직한 총장상’이 필요합니다. 우리대학의 발전에 필요한 총장상을 정립하여 대학의 장기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수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요약력>

△회계학과 교수  
△제주대 경영학 학사 △고려대 경영학 석사 △동국대 경영학 박사  
△2011.5~현재 제5대 교수회장  
△2010.1~2011.12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2008.9~2010.8 대한회계학회 부회장  
△2008.3~2010.2 경상대학장  
△2005.11~2011.10 제주특별자치도 과제전적부심사위원  
△1999.4~2000.3 제주대 경영경제연구소장

## 교수회장 선출 공고

●선거일시 : 9월 25일(화) 10:00~18:00  
소견발표 : 9:30~10:00  
1차투표 : 10:00~14:00  
2차투표 : 16:00~18:00

●선거장소 : 사회과학대학 중강당, 제주대학교병원 도서관, 사립캠퍼스 회의실

### ●임후보자 간담회 결과

-임후보자는 제6대 제주대학교교수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서약서 내용에 따라,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합의함.

-임후보자 합의 하에 당일 공개 소견 발표회만 개최(1인당 10분 이내)하기로 합의하고, 선거참관인은 두지 않기로 하는 등 선거과정에서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6대 제주대학교 교수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기로 서약함.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연구실 방문 허용(명함배부 가능), 전자통신 선거(전화, 문자, 메일 등) 허용, 유인물 배부 불허로 합의함.



교수신문



김정희  
경영학과 교수

“

어려운 현실에 주저앉지 말고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한걸음 한걸음 시작한다면

어느새 꿈과 소망은 이뤄진다

”

## 푸른 낙엽의 단상

아직 여름날의 열기가 남아있는 아라캠퍼스를 걸으면서, 문득 이 곳 저 곳에 흩어져있는 푸른 낙엽을 보았다. 가을은 저만치 멀리 있는데, 16호 태풍 불라벤이 휘몰아쳐 잎사귀, 나뭇가지, 뿌리를 할 것 없이 뒤흔들면서, 때 이른 푸른 잎이 아무도 없는 빈자리에 낙엽이 되어 떨어진 것이다.

푸른 잎이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가 아닌데, 아무도 모르게, 거친 바람 앞에 파란 잎을 하나 둘 빼앗긴 나무는 몇 잎 겨우 붙들고 웅하니 앙상한 가지들만 늘어져 있다. 마음속엔 아직 이루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데, 파란 낙엽엔 그냥 누군가가 밟고 간 흔적만 있을 뿐 결실이 없다.

낙엽! 나는 울긋불긋 곱게 물든 낙엽을 좋아한다. 나는 의례적으로 가을이 오면 단풍이 든 낙엽을 색깔별로 한 잎 한 잎 주워 담아 책갈피에 고이 간직하고, 겨울을 헤아리며 봄을 기다린다. 그러면 내 책갈피에서 숨어 지내며 노랗게 바랜 나뭇잎의 낙엽은 봄을 마중하고 추위를 견어 내며 파란 어린잎으로 새로이 돌아날 것 같기에.

이제 새학기가 되었다. 수강신청, 개강파티, 동아리 행사, 교우관계, 과제준비 등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과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분주한 일

과들을 보내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 이러한 일상들이 반복되다보면, 목표는 없고 과정만 있는 평이한 한 학기로, 푸른 낙엽이 되어 지고 말터인데... 이제 결실이 있는 노랗고 빨간 단풍으로 하늘을 날아오르자! 힘차고 멀리 거센 바람을 가르며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세 가지 약속이 있다.

첫째, 모든 일에 목표를 세우자. 크고 작은 과제들을 구분하여,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학기 단위의 목표를 각각 세 가지만 세워보자! 그리고 내가 지나온 길이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해보자. 목표는 내가 가야할 방향을 분명하게 가르쳐 줄 것이기에 완벽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둘째, 시간을 관리하자. 시간의 경계를 구분 짓고, 그날 그날 시간의 사용내역을 돌아켜 보며 과도하게 시간을 할애한 일에 대해 집중관리하자. 긴급한 일이나 사소한 일에 얽매이기 보다는 포기할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여, 중요한 일을 먼저 실천하자. 쉬는 시간, 공간 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생산적인 일에 활용하자.

셋째, 많은 것을 사랑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작은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많이 받을수록 많이 베풀려고 노력하자. 작은 일에 소홀히

여기지 말되, 큰 것에서 승부를 낼 줄 알아야 한다. 소외된 곳을 생각하며, 자신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주변에 고민하는 친구, 괴로워하는 친구, 낙담하는 친구, 외로워하는 친구의 마음들도 지나치지 말고 늘 함께 있자.

새학기에는 가을이 채 오기도 전에 연약한 아쉬움으로 떨어지는 푸른 낙엽이 아니라, 탐스럽고 아름다운 결실로 가득채운 가을 낙엽으로 풍요로움을 마음껏 만들어 보자.

가끔씩 찾아오는 바람의 유혹에도 끄떡없이, 가을 낙엽으로 물들 때까지 높은 곳이라도 힘껏 하늘을 향해 올라보자. 나태함을 잊고, 무절제를 없애고, 외로움을 털어 버리고, 세찬 바람에 맞서서, 튼실한 모습으로 가을을 맞이하자. 더 멀리 더 높이 미래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꿈과 희망, 열정과 인내로, 빨갛게 노랗게 물들어 보자!

어렵다고 낙담하지 말며, 현실에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나의 목표와 계획을 포기하지 말자.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쉬지 않고, 그렇다고 달리지도 말며,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시작한다면, 어느새 꿈과 소망은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도 푸른 낙엽은 다가올 가을을 잊고 말없이 지고 있다.

동문칼럼

## 대학생 스펙 쌓기의 불편한 진실



한수미  
제주관광대 직원  
산업디자인학부 93학번

전에 여름방학을 맞아 많은 대학생들이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스펙(specification)’이란 구축자들이 취업에 필요한 학점, 자격증, 토익점수, 경험 등을 말한다.

학생들에게 방학(放學)이란 말 그대로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날씨에 적당한 휴식을 가지면서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하지만 오늘날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많은 학생들은 방학 기간 중에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자기만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어떤 학생들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이학원을 전전하며 서포터즈, 홍보대사, 공모전, 해외연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그 이유는 자기만의 스펙을 무기로 남보다 더 빠르고 좋은 곳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다.

우스갯소리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취업을 위해 꼭 갖춰야 할 요소로 학벌, 학점, 외국어, 자원봉사, 공모전, 인턴, 성형이 ‘취업 스펙 7종 세트’로 불린다고 한다. 학생들은 치열한 취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방학 중에도 피나게 스펙 쌓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급년 초 발표한 ‘글로벌 고용 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약 7,500만 명의 청년이 실업자라고 한다. 전 세계 청년층의 실업률은 2차 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리스의 청년 실업률은 50%, 이탈리아는 35%를 넘는다. 또 우리나라도 20대의 실업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정부의 공식 집계에 의하면 청년 실업률이 10% 미만이지만, 실질적인 실업률은 그 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

이처럼 극심한 취업난은 대학생들이 좁은 취업문을 극복하기 위해 스펙 쌓기를 해야 하는 현실로 내몰고 있다. 어떤 대학생은 취업을 위한 어학, 자격증, 해외연수 등으로 1인당 평균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쓴다고 한다. 심지어 봉사활동도 스펙의 일환으로 해외로 나가는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 주객이 전도된 현상이다.

대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다양한 사회경험이나 학비 조달과 부족한 해외연수 경비를 충족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권장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소모적인 스펙 쌓기 경쟁을 하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파생될 수 있고, 우리 대학의 당면한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다.

졸업을 앞둔 재학생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1~3학년생들은 지나친 스펙 쌓기보다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평소 접해 보지 못한 다른 분야의 전문서적이나 교양도서를 읽거나 자기 전공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쌓는 것도 스펙을 쌓는 데 중요한 일이다.

불행하게도 대학생들 사이에 스펙을 위한 스펙을 쌓는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어쩌면 대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진정한 스펙 쌓기는 학교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 당국도 잘못된 스펙쌓기가 구조적으로 정착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들아르방



김명지 편집국장

매일 ‘제주대학교’라는 동판이 새겨진 교문을 무심히 스쳐간다. 신입생 시절에는 뭔지 모를 가슴 벅찬 감정도 느꼈다. ‘오늘은 내가 대학이라는 곳에서 어떤 큰 가르침을 배울 수 있을까’ 문득 오늘 교정을 향하면서 본 동판을 보고 있노라니 슬퍼졌다. 지난 밤 제주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된 ‘가꾸러 가는 제주대학교 취업률’을 바라보자니 서글픔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내가 교문을 지나면서 느꼈던 제주대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느꼈던 곳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나를 서글프게 한 건 ‘취업률’이 아니었다. 제주대 사회뿐만 아니라 전국 각 대학, 대한민국에 퍼진 취업, 취업, 취업 때문이다.

지금 제주대는 비상이다. 올해 제주대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올해 취업률은 47.7%로 지난 해 50.9%보다 더 떨어졌다.

제주대는 취업전략본부를 중심으로 취업률 하락 원인을 찾고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취업전략본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기존의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전략본부 뿐만 아니라 각 단과대학과 협력해 학생들의 취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취업을 하라, 그리고 이후의 일련의 과정을 보고 있노라니 궁급해졌다. 바로 이곳이 대학인가. 대학이 점점 학생 취업에 목숨을 걸고 있다. 이는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적인 이유로 뼈통을 수 없다.

특히 지난해부터 대학교조조정을 시작한 정부가 ‘취업률’을 재정지원과 학자금 대출 제한 여부를 좌우하는 주요 평가지표로 삼자 대학들의 취업률 올리기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가운데 취업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달한다. 취업률이 낮으면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힐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을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과연 우리는 취업을 하기 위해 제주대학교에 들어온 것일까. 취업전략본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12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자료를 보자.

신입생들은 대학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로 ‘폭넓은 대인관계 형성’ (42.8%)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전문적 공부’ (36.5%)라고 답했다. ‘자격증 시험 준비’ (2.4%)와 ‘해외어학연수 및 인턴십’ (2.4%)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적어도 신입생들은 취업을 위한 제주대학교를 꿈꾸지 않는다.

물론 취업이 중요치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취업이 현대 대학의 주요 기능이 돼서 학문적 기능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평가의 20%를 차지하는 취업률을 높이려고 전국 각 대학이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일부 다른 대학은 ‘취업률’에 사활을 걸었다. 이들 대학들의 취업률 부풀리기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취업률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취업서류를 만들거나 교내인턴 과다채용, 대학원생 정원 조작 등의 수법 등이 등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실시한 취업통계실태 특별감사 결과 총 29개 대학에서 취업률 부풀리기 45건을 적발했다. 이 같은 취업률 부풀리기는 2008년 각 대학들의 취업률 등을 공식하도록 하는 ‘대학알리미’가 시행되

면서 시작했다. 취업률이 대학의 지명도와 평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학은 과도기에 서있다. ‘대학이 학생들의 취업을 관여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점점 대학은 학생들의 취업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요구이고 당연히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대학의 의미와 기능을 설정해놓은 고등교육법의 제28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고등교육법과 달리 대학은 점점 취업지원시설의 성격을 띄어가고 있다. 취업을 4년제 대학의 기능으로 상정한다면 결국 전문대학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물론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야 할지, 아니면 고리타분한 법조문 따위로 받아들일지는 각자의 판단에 달렸다. 생각해 보라. 당산에게 제주대학교는 진정한 대학인가?

제주대신문 비평

## 딱딱함 버리고 학생 뉴스 실어야



김연신  
국어국문학과 3

하는 것은 그만큼 제주대신문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항상 지니고 다니는 스마트폰처럼, 쉽게 학교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는 그저 깨달음을 느끼는 재미로 읽기만 했는데, 이번엔 이렇게 독자의 눈을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국어국문학과 후배의 부탁이 그 계기였는데, 처음으로 제의를 받자마자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제주대신문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낯설지 않은 이름이기 때문이다. 그건 아마도 현재 국어국문학과 후배 네 명이 열심히 기사를 쓰고 있고, 또한 언론미디어센터 주관교수님이신 김동운 교수님께서 우리과 교수님이시라,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흔쾌히 수락하고 미숙한 눈으로 제 873호를 새롭게 보고자 노력했다.

이번 호에서 특히 내가 제일 눈여겨 본 부분은 8면의 ‘중앙자치기구 중간평가’이다.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만큼 중앙자치기구가 내세운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잘 분석해줘서, 학

생들에게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켰다고 본다. 그리고 한눈에 보기 쉽게 ‘공약 이행표’를 만들으로써, 표만 봐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었다.

등곳곳에 거의 모든 버스가 만원일 정도로 우리 학교에는 많고도 많은 학생들이 있다. 그렇지만 이번 호는 제주대신문의 주인이어야 할 학생이 아니라, 학교 기관이 보도록 만들어진 신문처럼 보였

다. 대체로 학과를 포함한 기관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정보위주 기사가 대부분이라서 그렇게 보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런지 이번 호는 다른 호보다 더 딱딱하게 느껴졌다.

이전의 신문들은 대학생들이 공감할 만한 기사, 예를 들어 ‘신입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법’ 같은 부드러운 기사 실려서인지 친근하게 느껴졌었기 때문이다. 아직 학생들이 많이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더 딱딱하게 보였을지도 모르겠다.

끝으로 더 많은 학우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 위해, 각 학과나 각 단대별 소식이 짧게나마 실렸으면 좋겠다. 또한 유학생들을 위한 코너도 넣으면 좋겠다. 특히 멀리 있지만 그래도 같은 학교 안에 있는 사라캠퍼스 소식도 간간히 넣으면 한다.

비록 작은 기사이지만, 이렇게 학우들에게 소식도 전하고, 학생들에게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 준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제주대 신문이 되지 않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보나.

추신으로 제주대신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싶다.

독자기고

## 제주해군기지 건설 득실 따질 때



홍연속  
정치외교학과 1

당초 예정지는 강정항이 아닌, 화순항이었지만 화순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되고, 2007년 6월 서귀포시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건설장소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로 인해 강정마을을 보존하려는 수백 명의 주민들과 환경단체, 건설을 추진하는 측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측은 환경단체와 주민들이다. 이들은 해군기지를 건설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무한한 가치가 있는 구름비해안이 파괴될 것이라고 한다.

구름비 바위는 길이 1.2km, 너비 150m에 달하는 보기 드문 거대한 단일 용암 너럭바위로서, 용천수가 솟아나 국내 유일의 바위습지를 형성하고 있어 매우 보전가치가 높다.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구름비 해안을 해치게 되면 해양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절대보전지역은 해체될 것이라는

게 그들의 의견이다.

그리고 해군기지 건설이 남한 보호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중국과 일본을 모두 경계하고 새로운 군비경쟁을 부추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반면 찬성하는 측은 해군기지 건설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해군기지를 건설함으로써 인해 인구유입, 학급의 수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상생을 가져올 것이라 보고 있다.

또한 군 장비 가족 방문과 관광객 유입으로 제주도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연간수입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해군기지 건설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은 서로 충분한 대화 없이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절대보전지역인 구름비 바위는 이미 파괴되었고, 사람들의 반대 또한 계속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주춧돌인 국민들의 의견 없이 일을 진행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지만 이미 건설이 되고 있는 만큼 무작정 반대만 하고, 무작정 밀어붙이기만 하는 것이 중요하게 아니다.

해군기지가 다 완공되었을 때 생길 문제와 영향에 대해서 양측이 서로 논의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백록담

#### ‘국회’ 초등학교 어린이 생활통지표

이름 : 박그네

학년·반 : 6학년 1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학교 결석이 잦습니다. 9번 중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

또 잘못에 대한 인정하는 태도가 부족합니다. 잘못에 대해 이해하려는 것보다는 친구들의 지적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귀 어린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 오페는 무슨 스타일?

정준길 변호사는 안철수에 불출마 압력

오페는 ‘협박’ 스타일

김찬경 회장은 서민들의 등골 브레이커

오페는 ‘협잡’ 스타일

강정의 현수막 갈기갈기 찢어버린 당신

오페는 ‘검객’ 스타일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건 바로 너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오페들은 광남(狂男) 스타일!



# 통일 주제로 하나 된 제주대와 울산대 간 담론의 장

우리에게 '통일'은 가깝고도 먼 단어다. 특히나 요즘 학생들에게 통일이란 반드시 이뤄야 할 숙명적 과제가 아닌, 부담스럽고 관심 없는 문제로 인식되는 것이 현실이다. 제주대 학생들은 지난 7일 울산대 학생들과 함께 통일 담론의 장을 펼치며 다시금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데 앞장섰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청년위원회와 울산지역청년위원회에서 주관한 이번 '제주·울산 대학생 합동 대토론회 및 안보현장견학' 행사는 7일부터 2박 3일로 진행해 총 120여 명이 참여했다. 기자는 이들과 동행하며 통일 토론회에 참석하고, 통일안보 현장 및 역사 유적지를 돌아보며 2박 3일을 함께했다.

지난 7일, 제주에서 울산으로 비행기를 타고 건너온 제주대와 청년위원 일행은 10시 반경 울산대에 도착했다. 11시를 넘긴 시각에 민주평통 울산지역청년위원회에서 주관한 대학생 통일문제 대토론회가 울산대 산학협동관에서 열렸다. 최우혁(민주평통 울산지역회의 청년위원장) 청년위원장이 개회사를 통해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다. 그 뒤에는 김철(민주평통 울산지역회의) 부의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토론회의 주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한국의 안보'. 울산대 이상용(사회과학부 경제학과 CSI 회장)씨가 발제를 맡았으며, 진행에는 울산대 장병익(울산대 사회과학부/울산평화통일포럼 운영위원장) 교수가 나섰다. 장병익 교수는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적화통일을 위한 결정적 수단"이라며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NPT를 탈퇴한 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핵 미사일 개발에 관한 북한의 현 상황을 알렸다. 그는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으로 남한이 큰 피해를 입고 남북한의 관계가 악화돼 가는 상황에서, 본 토론회의 주제가 대단히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발제 이상용씨 발제를 맡은 이상용씨는 "최근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함께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의 핵개발 목적은 한반도의 적화통일에 필요한 결정적 군사력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북한은 아직까지도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군축, 미군 철수 등 전쟁이 끝난 마냥 긴장의 고삐를 풀고 있다"며 "북한을 대처하는 데에는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와 안보 의식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이며, 동시에 주변국가와의 협조도 긴밀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씨는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에 대응한 우리의 확고한 안보전략, 자주국방 체제를 확립시켜야 한다"며 "국론을 통일하고 안보의식을 강화해 총체적

국민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토론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제주대 임현기(윤리교육과 3)씨가 발표를 시작했다. 임씨는 우선 "현재 우리의 대북정책은 크게 두 가지 접근방식으로 돼 있는데, 전자는 핵과 미사일 등 위협적 무기체제에 대한 견제, 후자는 필요식량 등을 지원해줌으로써 북한의 버랑 끌 외교전술을 완화시켜주는 포지티브한 정책"이라며 "이 둘은 우리의 안보와 동맹국의 안전이라는 기본적 철학 속에서, 일관되고 상호연계된 형태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씨는 이어 "앞으로 핵과 미사일 위험에 대해 정부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과 정확한 홍보가 필요하다"며 "주관적인 해석이나 정부 홍보 차원에서의 왜곡적인 토론회에 앞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적화통일을 위한 결정적 수단"이라며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NPT를 탈퇴한 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핵 미사일 개발에 관한 북한의 현 상황을 알렸다. 그는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으로 남한이 큰 피해를 입고 남북한의 관계가 악화돼 가는 상황에서, 본 토론회의 주제가 대단히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7일 열린 제주·울산 대학생 합동 통일 토론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소집체원의 경우 동맹국을 통해 전해들은 것이 일반적인 형태"라며 "이제는 이러한 후진적인 관행을 탈피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정보와 관련한 전담 기구의 설치와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강승구(정치외교학과 4)씨의 발표가 이어졌다. 강씨는 우선 "대북지원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원문제에 한정할 게 아니라 핵과 미사일, 그리고 경제제 지원이 군사적 사업으로 연계되는지 잘 감시해야 한다"며 "지원대상 물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지 않으면 중국에는 우리의 군사적 위협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씨는 이어 "대북정책과 관련된 정책

적 이슈에 대한 국민적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반드시 국민적 여론의 수렴과 공정한 현상 체인을 강구해 갈등과 마찰의 최소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북한의 핵문제와 대북지원 문제를 함께 다룰 전문적인 신설 조직이 생겨야 한다"며 "견제와 지원이 두 가지 정책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 주체의 통일성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울산대 학생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윤준호(경제학과 4/학과 회장)씨와 김가연(경제학과 3/학과 동아리 CSI 부회장)씨가 번갈아가며 발표를 진행했다. 윤준호씨는 우선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8일 방문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당시 사용되던 차를 타보는 울산대 학생들.

"통일이 되면 북한의 낙후된 환경 개선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러한 자금을 통일 이후에 확보하려고 할 게 아니라 사전에 확보해놓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가연씨는 "통일제 도입에 있어서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통일세를 꺼리는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씨는 "막대한 통일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기는 어려우므로 정책에 맞는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위세를 부활시키는 방안과 민간주도의 통일복권, 통일기금을 마련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우리는 통일비용뿐 아니라 통일이 주는 혜택과 이익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며 "군이 민족사적 당위성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국방비와 군사인력이 대폭 축소되고 지정학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으며, 남북간 사업의 합동을 통해 창출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같은 통일비용에 대해서도 중장기를 목표로 하는 적극적 투자가 간주돼야 한다"며 "북한주민에 대한 복지증진과 북한 재건을 위한 투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로부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씨는 "통일을 서둘러서 는 안 될 것지만, 앞서 토론자들이 말한 여러 방법들을 고안해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합정리 고성준 교수 끝으로 제주대 고성준(윤리교육과) 교수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안보가 중요하다"며 "핵무기와 같은 군사력 증강에 혈안인 북한을 명확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이어 "통일에 대해 학생들이 소극적인데, 어쩌면 이것은 학생들 본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가 분단이 된 것은 힘이 없어서였기 때문인데, 지금은 옛날의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견지하길 바란다"며 "우리도 통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열어가게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보현장 등 견학 토론회 이후에는 통일안보 현장 및 여러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날 오후에는 거제도 포로수용소를 다녀옴으로써 안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를 얻었다. 제주대 학생들과 울산대 학생들 간에 즐기는 장이 마련되기도 해, 두 대학의 학생들이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교류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현대중공업을 시찰하고, 경주문화를 탐방하는 등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며 숨가쁜 2박 3일을 보냈다. 행사에 참여한 양선아(정치외교학과 2)씨는 "통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었던 뜻깊은 경험이었다"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김소영 기자

제주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 11 > 교회법 제주포럼C 상임공동대표

## 160개 마을 탐방... “제주 농어촌은 역동적”

“제주도가 1%라는 자괴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1%라는 소중함에 긍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가치를 잘 활용해 제주 발전에 힘써야 합니다.”

제주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앞장서서 나서는 사람이 있다. 바로 '제주포럼C' 상임공동대표 교회법(60)씨다. 교회법씨는 제주도에서 나고 자랐으며 대학 시절을 서울에서 보냈다. CBS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뒤 한겨레신문 창간 멤버로서 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교회법

지난 2009년 제주도로 다시 돌아와서는 사회단체 '제주포럼C'를 만들었다. '제주포럼C'는 제주의 미래를 밝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다. C는 Change, Challenge, Communication의 약자로, 각각 새로운 변화, 미래를 향한 도전, 비전을 만들어가는 소통을 의미한다.

'제주포럼C'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제주미래를 만나다'라는 3부작으로 이뤄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부는 제주도를 이끌어 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선배에게 길을 묻다', 2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찾아 마을들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에서 길을 찾다'이다. 3부는 '함께하는 제주 미래'로 현재 도내의 18개 시

제가 제주도에 대해 배울 점도 많더군요.”

그러나 좋은 점만 발견한 것은 아니었다. 고씨는 직접 보고 들으면서 해결책이 시급한 문제도 많이 산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제주도 전역의 리 단위의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마을 주민들의 노력으로 설립한 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없어 폐교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를 보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학교가 사라지면 젊은 세대들이 점점 도시로 나가버리고 지역 경제가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서울에서 살고 있을 때에도 그의 제주도에 대한 애정은 남달랐다. 제주도를 떠나 살면서도 제주도 출신의 사람들과 함께 사회문제협의회(1987)를 만들어서 제주도와 관련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1988년에는 4·3 40주년 공개행사 세미나를 시작으로 4·3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졌다. 제주 4·3연구소 발족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이사장을 역임했다. 1998년 4·3 50주년이 되는 해에는 서울에서 행사를 일주일간 진행하면서 전국에 4·3사건에 대해 알리는 데에도 힘썼다.

### 마을마다 특성화 사업 농촌폐교 대책 시급 제주문제 해결에 앞장

살면서도 제주도 출신의 사람들과 함께 사회문제협의회(1987)를 만들어서 제주도와 관련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1988년에는 4·3 40주년 공개행사 세미나를 시작으로 4·3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졌다. 제주 4·3연구소 발족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이사장을 역임했다. 1998년 4·3 50주년이 되는 해에는 서울에서 행사를 일주일간 진행하면서 전국에 4·3사건에 대해 알리는 데에도 힘썼다.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제주도를 위한 활동들을 꾸준히 했어요. 고향을 떠나와서 제주도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제주도를 생각하면 행복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슬펐어요. 고향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저를 여기까지 오도록 한 것 같아요.”

그는 지난 세월 서울에서 제주도를 위해 한 일들을 설명하던 중 그 시절의 제주도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을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그의 제주도에 대한 애정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제주포럼C'의 활동이 젊은 대학생들에게 제주사랑이라고 인식된다는 것에 기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주 발전을 위해서라면 누구보다 앞장서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싶어요.”

성지아 기자



### 제주어 낱말맞추기

①		②			②	③
		③		④		
④	⑤			⑤	⑥	
	⑥				⑦	⑦

( )학과/학부 ( )학년  
이름 :                      연락처 :

제주대신문

#### 가 로 열 쇠

- 1) 제주에서 할아버지를 지칭할 때 부르는 말이다. 그 반대말은 '할망'이다.
- 2) 잠실을 제주에서는 '찍산'이라고도 하고 ○○이라고도 한다.
- 3) 제주도만의 이상향으로 그려지는 상상 속의 섬 이름이다. 문학 작품이나 민요 등에 많이 등장하고, 각종 상호로도 많이 사용된다.
- 4) '쌀밥'의 제주어이다. 예전 어려웠던 시절에 잔칫날 산부상에 올린 이것을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했다.
- 5) '그레'의 의미로 쓰이는 제주어다. "밥 먹어수파?" "○○, 훈저 먹으라."처럼 쓰인다.
- 6) 중이나 피륙 따위로 만든 큰 자루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 7) '낫'을 제주에서는 ○○라고 한다.

#### 세 로 열 쇠

- 1) '뽕이'라는 의미의 제주어다. "밥 ○○ 먹으라."처럼 쓰인다.
- 2) '장난감'을 의미하는 제주어다.
- 3) 무당이 굿을 하면서 집귀를 쫓아낼 때나 중술 때, 또는 점을 질 때 사용하는 도구다.
- 4) '돼지'를 제주에서는 ○○라고 한다. 한 글자로 '똥'이라고도 한다.
- 5) 열을 못하고 밥만 많이 먹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다. 표준어 '뽕보'에 해당하는 제주어다.
- 6) '여우'를 제주에서는 '여시' 또는 ○○라고 부른다.
- 7) 무명실로 짠 피륙인 '무명'을 제주에서는 ○○이라고 한다.

제주어 낱말맞추기 응모자는 9월 21일(금) 오후 6시까지 풀이지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당첨자 2명에게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드립니다. 이번 호 당첨자는 9월 26일(수) 877호 제주대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064) 754-2277 또는 010-9206-4598

출제 : 국어문화원 부설 제주어센터

### 교육역량강화사업 안내

1. 청년 우수 인재 집중 지도 집중지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직무별 전문가 초청 강연

대상 : 전학년, 미취업 졸업생  
모집기간 : 9월 말까지  
사업기간 : 내년 2월 말까지  
신청방법 : 취업전략본부 직접방문

2. 일본 무급 인턴십

대상 : JLT3 급 이상의 2~4학년 재학생  
지원사항 : 학점인정, 연수비용 등 지원  
모집기간 : 9월 21일까지  
연수기간 :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신청방법 : 취업전략본부 직접 방문

3. 재학생 학습과정 분석에 대한 설문조사

대상 : 전학년  
설문기간 : 오는 21일까지  
문의 : 기초교육원(754-2056)

4. 적성 및 성격유형 검사 KCCI 인성검사

대상 : 전학년  
신청기간 : 상시  
신청방법 : 소속학과 및 취업전략본부 신청